

2026 멕시코 진출전략

진출 환경
시장 분석
진출전략



Contents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04
2. 정치(정책) 환경	07
가. 정부 현황	07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08
3. 주요 이슈 Pick	10
가. 미·중 무역 경쟁 속 멕시코 통상 정책	10
나. 철도·항만·전력 인프라 프로젝트 세부 계획	11
다. 멕시코 공공 안전 정책 강화	14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16
가. 시장 특징	16
나. 무역	17
다. 산업	23
라. 투자	24
2. 유망 산업	28
가. 자동차·부품	28
나. ICT·디지털	30
다. 바이오·의료	32
라. K-소비재(화장품, 식품)	34
3. 협력 기회	37
가. 통상·G2G	37
나. 프로젝트	38
다. 공급망(자원개발)	39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42
2. 진출전략	44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상품)	56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서비스)	60
첨부 3.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62
첨부 4.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63

I . 진출 환경

- | | |
|---------------|----|
| 1. 경제 환경 | 04 |
| 2. 정치(정책) 환경 | 07 |
| 3. 주요 이슈 Pick | 10 |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 경제 전망

- (개요) 멕시코 중앙은행은 '25년 경제성장률을 기준 0.1%에서 0.6%로 상향 조정하였고, '26년 경제 성장률은 기준 0.9%에서 1.1%로 전망치를 높임('25.9월)

* 멕시코 중앙은행은 '25년 멕시코 경제가 예상 대비 견조한 흐름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둔화된 상태라고 진단 (El financiero, '25.9.1)

□ 호조 요인

- (수출 여건 안정) 미국의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USMCA를 통해 멕시코 수출은 안정세 유지
 - * USMCA 무관세 혜택 등으로 인해 미국의 관세 영향이 멕시코 거시 경제 및 수출에 제한적
- (금리 인하) 금융 비용 축소를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와 소비 촉진
 - * 멕시코 중앙은행은 '25년 인플레이션 관리를 위해 3, 5, 6, 8, 9월 등 총 5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하였으며, 누적 인하폭은 3월 9.5%에서 9월 7.5%로 총 200bp임
- (공공 투자 확대) 인프라와 에너지 확대에 중점을 둔 공공 투자 확충
 - * '25년 정부 지출은 약 9.3조 폐소로 전년 대비 실질 기준 3.3% 감소했으나, '26년에는 약 10.1조 폐소로 전년 대비 5.9% 증가
 - ** '26년 인프라·에너지에 투입될 총 예산은 9,601억 폐소(약 518억 달러)로, 정부 예산의 약 9.5%(멕시코 경쟁력연구소, IMCO)

□ 부진 요인

- (대외 불확실성) '26년 USMCA 재검토, 미국 트럼프 행정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미국-멕시코 간 불안한 통상 환경에 투자 심리 위축
- (인프라 부족) 항만·세관 처리 지연으로 운송 시간 증가하고, 불안정한 전력 인프라로 운영비용 상승하여, 기업의 생산성 증대 한계
 - * '25.8월 기준 멕시코 내 총 33만 5천여 개사가 장시간 정전 피해를 경험했다고 언급
 - ** 멕시코 송전망 확충률은 연 0.1%인 반면 전력 수요는 매년 3.4%~3.5%로 성장
- (내수시장 약세) 실질 임금 상승 둔화, 가계 신뢰도 하락, 송금 유입 감소 등 소비 여력 약화
 - * '25년 8월 기준 멕시코 해외 송금유입액은 55.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3% 감소

** '25년 9월 기준 평균 소비자신뢰지수는 46.2pt로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하였고, 실질 임금 상승률은 3.7%에 그쳐 연초 수준인 4.9%에 비해 낮음(BBVA, 멕시코 중앙은행)

□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인구	백만 명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명목 GDP	십억 달러	1,304	1,121	1,316	1,466	1,793	1,852	1,863	2,031
1인당 명목 GDP	달러	10,251	8,744	10,207	11,288	13,713	14,034	13,967	15,111
실질 성장률	%	-0.3	-8.6	5.7	3.9	3.2	1.4	1.0	1.5
실업률	%	3.5	4.4	4.1	3.3	2.8	2.7	2.9	3.1
소비자물가 상승률	%	3.6	3.4	5.7	7.9	5.5	4.7	3.9	3.3
재정수지(GDP 대비)	%	-2.3	-4.3	-3.7	-4.3	-4.3	-5.7	-4.3	-4.1
총 수출	백만 달러	460,604	417,171	494,949	577,698	593,005	617,100	-	-
(對韓 수출)	백만 달러	4,909	5,487	7,004	7,353	6,031	6,210	-	-
총 수입	백만 달러	455,242	382,986	505,703	604,615	598,475	625,312	-	-
(對韓 수입)	백만 달러	17,647	14,710	19,055	22,489	19,563	22,985	-	-
무역수지	백만 달러	5,362	34,185	-10,754	-26,917	-5,470	-8,212	-	-
경상수지	십억 달러	-3.87	26.87	-4.56	-18.92	-12.59	-16.74	-4.64	-6.98
환율(연평균)	현지국/US\$	19.3	21.5	20.3	20.1	17.8	20.0	-	-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107.6	17.2	-21.3	145.3	65.7	57.3	-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346.2	282.1	334.9	363.2	362.8	368.7	330.0	357.2

주: '25년은 추정치, '26년은 전망치임

자료: 인구/명목GDP/1인당 명목GDP/실질성장률/실업률/소비자물가상승률/재정수지/경상수지(IMF), 총 수출/對한 수출/총수입/對한 수입/무역수지(멕시코 중앙은행), 해외직접투자(멕시코 경제부), 외국인직접투자(UNCTAD)

□ 현지 경제 상황

- (경제성장률) '25~'26년 멕시코 경제는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제한적 회복세
 - ('25년) 멕시코 경제성장률은 약 0.6%로, 기존 0.1%에서 상향 수정(멕시코 중앙은행)
 - ('26년) 금리 인하에 따른 내수 회복 전망,對미 수출의 안정세 등으로 기존 0.9%에서 1.1%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추후 USMCA 재협상 방향, 투자 심리 회복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
- (소비) 물가는 안정에 접어들고 있으나, 소비 심리는 여전히 침체
 - '25년 소비자물가증가율은 3%대로 '22년 8% 이후 안정
 - 소비자신뢰지수는 지속적으로 50pt 미만을 기록하며 내수 회복세는 제한적임
 - * 소비자신뢰지수: 46.3(2월) → 45.3(4월) → 45.4(6월) → 46.7(7월) → 46.5(9월) (소비자신뢰지수는 2003년=100기준으로, 보통 50 미만은 체감 경기 악화를 의미)
- (민간투자) 건설 부문은 회복 추세지만 기계·장비 부문 부진
 - 특히 주택 건설 분야 투자는 마이너스를 유지하다 공공사업 확대 등으로 25년 2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계·장비 분야는 투자 심리 저하 등으로 -10%대 부진
- (산업 생산) 광업, 건설업, 제조업 등 주요 분야에서 감소세
 - USMCA 재검토 등 통상 불확실성 심화, 미국 경기 둔화, 생산 효율성 제약 등으로 전반적으로 산업 생산 축소
- (대외 교역) 대외 교역 규모는 20년 저점 이후 증가했으나, 석유 분야 만성적 적자 발생
 - '25년 멕시코 수출은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할 가능성 높으나, '26년 USMCA 재검토 결과가 향후 수출 여건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
 - 세계 10위 원유 생산국인 멕시코 원유 수출은 지속 감소. 정유 설비 한계로 인해 정제유, 천연가스 등을 미국 등지에서 역으로 수입하는 구조임
 - * 멕시코 원유 평균 월별 수출액: 27.6억 불('23) → 24억 불('24) → 18.6억 불('25)
- (투자 유입)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 '25년 상반기 외국인투자유치액은 342.6억 달러로 최고 기록 달성
 - (국가별) 미국(42.9%), 스페인(17.3%), 캐나다(5.1%), 일본(4.2%), 독일(3.7%) 순
 - (산업별) 제조업(36.0%), 금융서비스(26.7%), 건설업(7.6%), 광업(7.2%), 기타(7.1%) 순
- (투자 진출) 해외직접투자는 정치 및 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큰 편
 - '24년 멕시코 해외직접투자액은 총 57억 3,63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8% 감소
 - * Grupo FEMSA, Grupo Bimbo 등이 미국, 튀르키예, 튀니지 등지에서 편의점 체인·제빵 브랜드 인수 등

2. 정치(정책) 환경

가. 정부 현황

□ 세인바움 정부 임기 1년, 대미 외교 및 복지 정책으로 79%대 높은 지지율 유지

- (산업 정책) ‘플랜 멕시코’를 통해 식량·에너지 자급, 인프라 확충, 전략 산업 육성 등 생산 기반 강화와 수입 의존도 축소를 병행 추진
 - (대미 외교 정책) 25.10월 기준 멕시코를 상호 관세 제외국으로 추진 중이며, USMCA를 활용해 관세 타격을 최소화하는 등 여·야당을 포함 시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
 - (복지 정책) 노년층·여성 대상 복지 연금 프로그램, Bienestar 카드* 도입, 농촌 및 저소득층 대상 식품 배급 정책 등으로 지지율 상승
- * 멕시코 복지은행에서 발급하는 직불 카드로, 노인·장애인 연금 등 정부 지원금을 수혜자 대상으로 직접 지급

□ 2026년 정부 예산안 – 징수 효율 제고·인프라 및 복지 부문 투자 확대

- (세입) '26년 정부 수입은 8조 7,211억 폐소(약 4,714억 달러)이며, 전년 대비 6.3% 증가
 - * FTA 미체결국에 대한 전략적 관세 부과, 디지털 기술을 통한 탈세 방지 강화 등을 통해 세목 신설 없이 기존 세목에서 징수 효율 제고

부문별 세입

부문	배정액 (십억 MXN)	비중 (%)	실질 증감률 (%)
총 세입	8,721.1	–	6.3
석유 부문 조세(수출 수입, 사용료 등)	1,204.3	13.8	20.3
비석유 부문 조세	7,516.8	86.2	4.4
– 일반(소득세, 부가가치세, 수입관세 등)	5,838.6	66.9	5.7
– 기타 및 국영기업 수입(벌금, CFE 등)	1,678.2	19.3	0.3

자료: 멕시코 재무부(1USD=18.5MXN)

- (세출) '26년 정부 지출은 약 10조 1,114억 폐소(약 5,467억 달러)로 전년 대비 5.9% 증가

* 철도·항만 등 인프라 현대화와 노인·여성 대상 연금 확대 등 복지 부문에 중점

부문별 세출

부문	배정액(십억 MXN)	비중(%)	실질 증감률(%)
순 지출	10,114.8	-	5.9
사용처 배정 예산	7,015.9	69.4	5.1
연방 행정부	6,934.7	68.6	5.1
정부 운영	320.9	3.2	2.2
사회 복지	4,916.2	48.6	4.0
경제 개발	1,691.0	16.7	8.9
재정안정기금	6.6	0.1	-19.7
입법·사법부, 독립기관(INEGI 등)	160.1	1.6	3.3
지급 유예	-78.9	-0.8	0.5
사용처 비배정 예산	3,098.9	30.6	7.9

자료: 멕시코 재무부(1USD=18.5MXN)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 플랜 멕시코(Plan Mexico 2025–2030)

- 주요 내용
 - (산업 자급 확대) 전략 산업(자동차, 항공우주, 반도체 등) 내 글로벌 공급망 국산화율 15% 달성, 연간 15만 명의 전문 기술 인력 배출, 제조업 150만 개 일자리 창출
 - (투자유치 활성화) 투자 유치 행정 절차 간소화, 경제개발지구(polos de desarrollo economico) 조성 및 입주 기업 대상 세제 인센티브* 제공
 - * 신규 유형 자산 100% 즉시 공제, 직원 훈련 프로그램 및 R&D 프로젝트 추가 25% 세액 공제 등
- (추진 현황) 메이드 인 멕시코 캠페인 추진('25.5), 산업재산권 보호법 개정('25.6) 등
- (한계) 정부 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민간 자본 투입 및 활성화가 필수로 지적

□ 산업 인프라 현대화 정책

- (전력) 국가 송전망 확장 및 현대화와 청정에너지 발전을 위해 6,246억 폐소(약 339.8억 달러) 규모의 '2025~2030 국가 전력 시스템 확장 계획' 추진
- (철도) 국토 발전 및 물류 효율성 제고 위해 1,570억 폐소(약 85.4억 달러)* 규모의 '2025 국가 인프라 계획 : 여객·화물 철도' 추진

* 2025년 한 해 기준 공공 투자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약 240~2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

- (도로) 치안 및 도난, 도로 상태 불량, 인프라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해 1,730억 폐소(약 94.1억 달러) 규모의 ‘2025~2030 국가 도로 인프라 계획’ 발표
- (항만) 항만 용량 확충, 물류 인프라 확장을 위해 약 551억 폐소(약 29.9억 달러) 규모의 ‘2025 6개 전략 항만 현대화 투자 계획’ 추진
 - 엔세나다, 만사니요, 라사로 카르데나스, 아카풀코 등 6개 항만에서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능력 강화, 크루즈 수용 능력 확대 등

□ 공공 복지 시스템 개선

- (보건) 정부 의약품 입찰에서 멕시코 내 생산시설 보유 시 우대하고, 지역 내 필수 의약품 국가 배송 시스템 ‘Ruta de la Salud’ 구축
 - * 도로망, 물류거점, 디지털 모니터링을 연계해 전국 공공 병원에 적시 공급
- (주택) 임기 내 100만 호 이상의 신규 공공임대 주택 건설
- (교육) 26년부터 공립 기초 교육기관(유치원, 초·중학교)의 모든 학생 대상 보편 장학금(beca universal) 지급, 공립대학 30만 명·고등학교 20만 명 정원 확대

3. 주요 이슈 Pick

가. 미·중 무역 경쟁 속 멕시코 통상 정책

□ 미국의 對멕시코 통상 정책

- (관세 부과) USMCA 원산지 미준수 제품에 관세('펜타닐 관세') 25% 부과
 - 이와 별도로, USMCA 원산지 미준수 자동차·부품에 25% 관세 부과, 미국 외에서 제강·제련된 철강·알루미늄에 50% 관세 부과
 - 단, 자동차·부품, 철강·알루미늄, 펜타닐 관세 순으로 부과되며 상호 미증첩
- (영향) '25년 7월 기준 멕시코는 여전히 미국의 제1위 수입국으로, 관세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임
 - (수출) '25.1~7월간 멕시코의 對미국 누적 수출액은 3,09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
 - * 미국 전체 수입의 15.1%로 캐나다, 중국 등 타 국가 대비 對미 수입 비중 감소 폭이 가장 작음
 - (USMCA 준수율) '25년 7월 기준 멕시코의 USMCA 준수율은 84.4%로, 5월(42%), 6월(77%) 대비 크게 증가함
 - * 멕시코 경제부는 對미 수출의 최대 90%까지 USMCA로 인한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다고 언급
 - (진출 기업) LG전자는 '25년 9월부 세탁기 생산을 북부 멕시칼리 공장으로 확대. 현대·기아는 투싼의 일부 생산 물량을 누에보레온 페스케리아에서 미국 앨라바마 공장으로 이전
- (USMCA 공동 검토) 무관세 혜택 품목의 원산지 규정 조정이 주요 쟁점으로, 미국은 멕시코에 대해 중국산 우회 수출 차단, 원산지 규정 강화, 민감 산업(반도체·광물 등) 공급망 논의 등을 요구할 가능성 큼
 - * USMCA 34조 7항에 의거, '26년 7월 1일 '공동 검토 회의(Joint Reivew)'가 소집되며, 회원국은 공동 검토 이전에 자국 내 이해관계자들과 사전 협의(Preparatory Consultations)를 진행할 수 있음

※ [참고] USMCA 공동 검토 회의('26.7.1.)

- 내용 : '26.7월 1일, 3국이 USMCA 협정의 유효기간의 16년 연장(2026~2042) 여부 결정
- 주요 시나리오 ① 16년 연장 합의 시
 - 2032년에 두 번째 공동 검토 실시. 그 이후 6년(2038년, 2044년)마다 갱신 여부 판단
 - 각 공동 검토 시점마다 합의 시 협정은 다시 16년씩 연장
- 주요 시나리오 ② 16년 연장 불발 시
 -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 매년 연례 검토(annual review) 실시
 - 10년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시 협정은 2036년 7월 1일부로 만료

□ 멕시코의 對중국 통상 규제

- (배경) 미국과 정책 공조 및 대미 협상력 확보, 무역수지 개선, 현지 생산 장려 등
- (FTA 미체결국 대상 관세 인상) 자동차·부품, 철강, 플라스틱 등 17개 전략 산업, 1,463개 품목 대상 10%~50% 관세 부과 예정

※ [참고] 멕시코 비FTA 체결국 관세 인상 (의회 검토 중)

- (적용 품목) 자동차·부품, 철강·알루미늄, 섬유·의류, 가전 등 수입 의존도가 높으면서 국내 산업 보호가 필요한 품목 1,463개** 멕시코 전체 수입의 8.6%에 해당하며, 약 520억 달러 규모
 - (인상 관세율) 10%~50%*
- * IMMEX 등 관세 유예 프로그램 적용 금지 여부 관련 확정된 사항은 없음('25.10월 기준)
- (적용 국가) 멕시코와 FTA 체결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대한민국, 중국, 인도, 태국 등)
 - (원문 링크) <https://gaceta.diputados.gob.mx/PDF/66/2025/sep/20250909-X.pdf>

- 기타
 - (철강) 동남아 제강소 수입 승인 제한, 공공 인프라 입찰 시 멕시코산 철강 우선
 - (섬유) 원단·의류 155개 품목 관세 최대 35% 인상
 - (신발) 완성품(HS64) IMMEX 프로그램* 적용 금지
 - * IMMEX : 최종 수출 목적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원자재·부품 수입 시 관세를 임시로 유예하는 연방 수출 촉진 프로그램
 - (해외직구) FTA 미체결국 발 해외 직구품에 관세 19%, 33.5%로 두 차례 인상

□ 시사점

- 산업별 영향
 - (자동차·부품) 미국 25% 관세 부과로 영향이 큼. USMCA 충족하더라도, 역내산이 아닌 미국산에 한해서만 무관세이므로 대체 공급망 확보 필요
 - (반도체·전자 등) 고부가가치 생산설비 현지화 검토 필요
 - (기타) IMMEX 제도 금지 품목 확대 시 원자재 수입 비용 증가 및 공급망 부담 가중

나. 철도·항만·전력 인프라 프로젝트 세부 계획

□ 전력

- (발전 설비 확충) 약 4,246억 폐소(약 231억 달러)·29GW 규모의 76개 발전 프로젝트 추진
 - * 풍력(7건, 2,470MW, 32.5억 달러), 태양광(9건, 4,673MW, 49억 달러), 복합 사이클(5건, 3,425MW, 26.6억 달러), 배터리 저장(2,216MW, 23억 달러), 열병합 발전(3건, 2,422MW, 20.6억 달러) 등

- (송·배전망 확장 및 현대화) 약 2,000억 폐소(약 108.8억 달러) 규모, 294개의 프로젝트
 - (송전망) 15,729MW 규모 고전압 전선 확충 등 송전망 확장 프로젝트 158건
 - (배전망) 신규 변전소 97기 건설, 기존 변전소 확충 95건, 배전망 현대화 6,875건, 전력 보급 사업 42,221건 추진
- (주요 프로젝트)

발전원	프로젝트명	발전 용량 (MW)	투자 규모 (백만USD)	운영 예상 시기	주요 내용
태양광	Carbon II	608	949		
	Río Escondido	200	394	2027.7월	코아우일라 북부 지역 핵심 발전소
	Altamira	180	309		타마울리파스 산업단지 전력 공급
복합발전	Francisco Pérez Ríos(Tula II)	879	777	2028.12월	기존 중유 발전을 천연가스로 대체
	Guadalajara	934	571	2029.5월	서부 지역(할리스코) 전력 수요 대응
	Maztalán	569	458	2028.6월	시달로아주 관광 및 항만 지역용 천연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

자료: 멕시코 연방전력청(CFE)

□ 철도

- (여객·화물 철도 확충) 2030년까지 약 3,000km 길이의 신규 여객 철도 건설, 마야 열차의 화물 시스템 전환 등
- (주요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길이 (km)	담당기관	투자 규모 (십억 USD)	시기 (예정)	주요 내용
Mexico City–Querétaro	226.4	SEDENA	9.8	2025. 5 착공 2028년 운행 예정	전기 고속철로 수도권과 바히오 지역을 연결
Saltillo–Nuevo Laredo	363	SICT	8	2025.7 공개 입찰 2029년 운행 예정	코아우일라와 타마울리파스 간 북부 산업 지대 연결
Querétaro–Irapuato	108	SICT	5.3	2025. 하반기 착공 2029년 상반기 운행 예정	바히오 경제벨트 내 주요 도시 연결
AIFA(펠리페양헬공항)–Pachuca	57.5	SEDENA	3.0	2025. 3 착공 2026년 말 운행 예정	수도권 북부와 이달고주를 연결하여 도로 혼잡 완화, 주변 산업단지 물류 개선

※ 일부 수치는 현지 언론, 정부 사이트 간 소폭 차이 발생

자료: 멕시코 국방부(SEDENA), 인프라통신교통부(SICT), Proyecto Mexico

□ 도로

- (주요 사업) 4,000km 도로 확장 및 대규모 개보수, 18개 교량·고가 도로 건설, 3.3만km 구간 도로 정기 보수 등
- (주요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길이 (km)	투자 규모 (백만USD)	건설 시기	주요 내용
Toluca-Zihuatanejo	317	1,005	2025~2031	멕시코주와 게레로주간 교통 흐름 개선
Guaymas-Esperanza-Yécora-Chihuahua	347	981	2026~2030	치와와주와 소노라주를 연결하여 멕시코 북부 지역 물류 개선
Cuautla-Tlapa-Marquelia	382	730	2025~2030	게레로주 소외지역(La Montaña등) 도로 연결성 개선
Macuspana-Escárcega	130	605	2025~2029	타巴斯코와 캄페체를 연결하여 남동부 지역 산업 발전 기여

자료: 멕시코 인프라통신교통부(SICT), Proyecto Mexico

□ 항만

- (투자) 총 551억 폐소(약 29.9억 달러) 규모의 6대 항만 현대화 프로젝트 추진
- (주요 항만별 프로젝트)
 - (만사니요) 연간 최대 1천만 TEU 처리를 위해 석유·컨테이너 터미널 6기 건설, 신규 세관 구역 구축 (205억 폐소, 약 11억 불)
 - (라사로 카르데나스) 세관 부지 확장, 항만 도로 정비(74.7억 폐소, 약 4억 불)
 - (엔세나다) 항만 수역 확장, 해상 교통 관제센터 신설 (56.3억 폐소, 약 3.5억 불)
- (주요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담당 기관	투자 규모 (백만USD)	건설 시기	주요 내용
Modernización del Puerto de Manzanillo	SEMAR(해군), SCIT	1,108	2024~2030	최대 2,000m 규모의 부두 건설
Ampliación del Puerto de Progreso	SEMAR, API Progresso	578	2024~2030	프로그레소 항만 용량 3배 확장
Modernización del Puerto de Lázaro Cárdenas	SEMAR, API Lazaro Cardenas	404	2024~2030	아시아와 멕시코 중부 바하오 지역을 잇는 태평양 물류 허브 개발

자료: Proyecto Mexico

□ 시사점

- (관련 산업) 철도차량·부품, 항만 장비·조선 설비, 송배전 기자재 등
- (우리 기업에의 영향)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기자재·건설·에너지 설비 수요 증가
 - 현지 조달·국산화 요구, 입찰 절차 복잡성 등 진입장벽에 대한 대비 필요

다. 멕시코 공공 안전 정책 강화

□ 민생 치안 수준 제고

- 배경
 - (치안 불안) 정부의 국경 통제 및 마약 카르텔 단속 강화에 대한 반발로 최근 시날로아·할리스코·과나후아토 등지 치안 악화
 - * 반정부 무력 저항, 카르텔 간 내부 분열 심화로 주민 안전 위협 고조
 - * '25년 시날로아주 주요 카르텔 두목 검거 직후 살인 건수 전년 대비 400% 증가
 - (대체 범법행위) 마약 유통 수익이 차단되는 경우 주민 대상 갈취·토지 점유 횡행
 - * '25년 미초아칸주 Los Viagras 등 카르텔 조직 아보카도·감귤·축산 농가 대상 갈취 확대
 - (시민 불안) '25년 1분기 기준 국민의 약 61.9%가 거주 지역이 불안하다고 인식
 - * 24년 6월 기준(59.4%)보다 높은 수준
- 셰인바움 대통령 주요 공공 안보 정책
 - (공공안전부 강화) 법 개정을 통해 공공안전부(SSPC)를 독자적 범죄 수사가 가능한 조직으로 개편
 - * 공공안전부(SSPC) : 멕시코 경찰을 관할하는 연방 치안 및 공공 안전 총괄 부서
 - (기관 간 협력체계 개선) 군·경 간 통합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 공조 확대
 - (치안·방위 부문 투자 강화) 첨단 기술 기반 수사 체계, 치안 관제센터 현대화
 - * 감시 카메라, 드론, 고속도로 통합 관제센터, 디지털 조기 경보 시스템, 원격 조종형 로봇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공 안전 인프라에 대한 수요 확대 전망

□ 시사점

- (관련 산업) AI 기반 스마트 보안, 디지털 감시 인프라, 데이터 기반 치안 솔루션 수요 확대
 - 안면·번호판 인식 카메라, 드론, AI 소프트웨어, 생체인식 장비 등 디지털 보안 기술 품목 성장세 뚜렷
- (우리 기업에의 영향) 한국 기업의 ICT 및 AI 기반 보안장비 기술력은 멕시코 정부의 치안 인프라 강화 기조와 부합해 진출 확대 가능
 - * 멕시코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국 보안장비 기업 H사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멕시코 지방정부와 스마트 보안 프로젝트에는 주로 현지 SI 기업이 입찰에 참여하고 국내 기업은 제조사로 참여하는 형태이며, 주요 애로 사항으로는 중국 제조사들의 저렴한 가격 공세와 현지 정부-기업 간 부정부패 등을 꼽음.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16
2. 유망 산업	28
3. 협력 기회	37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 (규모) 멕시코는 인구 1억 3,000만 명, GDP 1.8조 달러 규모의 거대 시장
- (특징) USMCA 활용 對미 수출 경쟁력 보유, 북미·중남미를 연결하는 대표적 교역·물류 허브, 타 중남미 대비 높은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풍부한 청년층 인구
- (유망)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추세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유망 지역 부상, 자동차·ICT·바이오의료 등 주요 산업 진출 기회 확대 가능

가. 시장 특징

□ 주요 특징

- (전략적 위치) 북미·중남미 양대 시장을 연결하는 교역·물류 허브로, 제조·수출 플랫폼 역할 수행
- (미국 공급망 재편 수혜국) 미국 신행정부 對중국 견제, 보호무역 강화 추세에서 멕시코는 USMCA 무관세 혜택과 지리적 인접성 기반으로 니어쇼어링 유효
- (높은 제조업 비중) 타 중남미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 '24년 멕시코 제조업의 GDP 부가가치 비중은 19.6%로, 브라질(12.4%), 아르헨티나(15%) 등에 비해 높은 편
- (풍부한 노동력) 멕시코 인구는 약 1억 3,000만 명 중 25년 기준 평균 연령은 30세로 청년층 비중이 높음
 - 특히 매년 10만 명 이상의 대졸 엔지니어 육성 및 배출할 수 있는 교육 환경 보유(ProMéxico)

□ 소비 성향

- (소비 둔화) 가계 지출 증가율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상승, 미국 관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24년 2.5%에서 25년 0.2%로 하향 전망(Fitch Solutions)
- (높은 가격민감도) 인플레이션 여파로 대형 마트(Soriana 등)에서는 PB(Private Brand) 판매 비중이 확대하고 있고, 가격 대비 품질을 중시(Fitch Solutions)
- (구매 채널 다양화) 24년 기준, 6,700만 명 이상이 전자상거래 사용
 - 디지털 구매자 10명 중 3명은 인스타그램, 틱톡과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제품 구매 경험을 보유하는 등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구매 채널 확대(온라인 판매협회, AMVO)

나. 무역

□ 수출입 동향

- 미국, 중국 등에서 자동차 부품, 전자 부품 등을 수입, 가공하여 주로 미국으로 자동차, 전자기기를 수출하는 구조
- (수출) 전년 대비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5년 상반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3,127억 달러
- (수입) '24년은 전년 대비 5.1% 증가하였고, '25년 상반기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한 3,113억 달러

멕시코 수출입 규모 동향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1~6월 누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593.0	2.6	617.6	4.1	312.7	4.3.
수입	605.2	-0.1	636.2	5.1	311.3	0.2
무역수지	-12.2		-18.6		1.4	
총 교역	1,198.2	1.2	1,253.8	4.6	624	2.3

자료: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

□ 주요 수출국 및 수출 품목

- (수출국)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 캐나다, 중국, 독일, 한국이며, 멕시코 총 수출액의 약 83%가 미국향으로, 對미 수출의존도 매우 높음
- (수출 품목)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및 부품, 전자기기, 기계 등이며, 해당 3대 품목이 총 수출액의 약 60% 차지
 - * 승용차(HS8703), 화물자동차(HS8704), 차량 부품(HS8708), 절연전선(HS8544), 컴퓨터(HS8471) 등

멕시코 5대 수출 대상국

순위	국가	2022년		2023년		2024년(기준)		2025년(1~6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미국	472,584	81.8	490,183	82.7	512,569	83.1	260,802	83.4
2	캐나다	15,586	2.7	18,010	3.0	18,906	3.1	10,200	3.3
3	중국	10,917	1.9	10,058	1.7	9,937	1.6	4,592	1.5
4	독일	8,339	1.4	9,202	1.6	7,691	1.2	3,013	1.0
5	한국	7,353	1.3	6,029	1.1	6,165	1.0	3,075	1.0

자료: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

□ 주요 수입국 및 수입 품목

- (수입국) 주요 수입 대상국은 미국, 중국, 한국, 독일, 일본이며 미국(40%), 중국(20%)이 멕시코의 총 수입액 약 60% 차지
- (수입 품목) 주요 수입 품목은 전자기기, 기계류, 자동차 및 부품으로, 최근 3대 품목의 수입액 비중 증가 추세('22년 43% → '23년 47% → '24년 49%)
 - * 전자집적회로(HS8542), 전화기·송수신용 기기(HS8517), 전기회로·커넥터(HS8536) 등

멕시코 5대 수입 대상국

순위	국가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1~6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미국	265,026	43.8	255,440	42.7	250,891	40.1	123,659	39.7
2	중국	118,696	19.6	114,191	19.1	129,795	20.8	62,127	20.0
3	한국	22,489	3.7	19,563	3.3	22,985	3.7	11,280	3.6
4	독일	18,455	3.1	21,240	3.5	21,363	3.4	9,535	3.1
5	일본	18,297	3.0	20,624	3.4	19,261	3.1	9,283	3.0

자료: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

멕시코 10대 수출입 품목

순위	품목(HS코드)	수출			수입			
		'23년	'24년	'25.1~6.	'23년	'24년	'25.1~6.	
1	자동차 및 부품(87)	156,466	160,603	75,062	전자기기(85)	121,332	130,842	64,544
2	전자기기(85)	103,407	107,742	52,153	기계류(84)	95,719	109,689	62,119
3	기계류(84)	93,499	105,927	67,848	자동차 및 부품(87)	61,274	65,510	29,674
4	광학기기(90)	27,333	29,896	15,636	광물성 연료(27)	50,049	40,993	18,721
5	광물성 연료(27)	32,891	28,276	10,947	플라스틱(39)	30,715	32,104	15,361
6	가구(94)	12,899	12,771	6,099	기타(98)	20,963	23,997	10,734
7	음료(22)	11,982	12,588	6,030	철강(72)	21,547	20,243	8,447
8	플라스틱(39)	11,743	12,417	6,028	광학기기(90)	16,480	18,525	8,901
9	과일(08)	11,266	11,817	6,965	유기화합물(29)	11,038	10,633	5,269
10	광물·스크랩(26)	8,537	10,162	5,810	알루미늄(76)	9,496	10,232	5,336

자료: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

□ 對韓 교역 동향

- (교역) '24년 기준 한-멕 총 교역액은 211억 달러로, 멕시코는 한국의 제12위 교역국
 - (수출) 한국의 對멕시코 수출액은 최근 4년간 '23년을 제외하고 증가 추세였으나, '25년 상반기 수출액은 59.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1% 감소
 - (수입) 한국의 對멕시코 수입액은 최근 4년간 연 75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25년 상반기 수입액은 45.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9% 증가
 - (수지) 한국은 對멕시코 무역수지 흑자 유지 중이나, '25년 상반기는 전년 동기 대비 58.7% 감소한 14.3억 달러 흑자 기록

한국의 對멕시코 교역 동향

구분	(단위: 백만 달러, %)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1~6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11,290	37.0	12,654	12.1	12,222	-3.4	13,604	11.3	5,941	-14.1
수입	7,889	24.1	8,577	8.7	7,631	-11.0	7,514	-1.5	4,509	30.9
수지	3,401	80.4	4,077	19.8	4,591	12.6	6,091	32.6	1,432	-58.7

자료: 한국무역협회

- 주요 교역 품목

- (수출) 한국의 대멕시코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부품, 평판 디스플레이, 아연도강판 등으로 해당

3대 품목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약 30% 차지

* '25년 상반기는 전체 수출액 감소 추세로 인해(전년 동기 대비 14.1% 감소), 한국의 10대 수출 품목 중 제어용 케이블을 제외한 전 품목 수출액 감소

한국의 대멕시코 10대 수출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24년				2025년 1~6월(누계)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	총 수출	13,604	11.3	-	총 수출	5,941	-14.1
1	자동차 부품	2,153	16.4	1	자동차 부품	941	-6.4
2	평판 디스플레이	1,071	49.4	2	평판 디스플레이	433	-24.6
3	아연도강판	835	-3.2	3	아연도강판	353	-22.0
4	냉연강판	658	3.3	4	합성수지	304	-3.8
5	합성수지	624	4.8	5	냉연강판	301	-8.3
6	집적회로반도체	439	28.0	6	집적회로반도체	216	-0.1
7	펌프	411	-7.2	7	펌프	214	-3.0
8	전산기록매체	373	137.0	8	승용차	165	-16.7
9	승용차	364	-8.2	9	제어용케이블	113	16.3
10	기타기 계류	299	26.9	10	전산기록매체	95	-42.4

자료: 한국무역협회

- (수입) 한국의 대멕시코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 기타 금속광물*, 원동기 등으로, 해당 3대 품목의 수입액이 전체 수입액의 50% 이상 차지

* 귀금속(금·은·백금), 희유금속(리튬·코발트·망간 등), 희토류 등

** 특히 '25년 상반기는 전년 동기 대비 광물 품목의 수입액이 큰 폭으로 증가(기타 금속광물 165.8%, 동광 147.4%, 아연광 132.5%)

한국의對멕시코 10대 수입 품목 동향

2024년				2025년 1~6월(누계)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총 수입	7,631	-11.0		총 수입	4,509	30.9
1	원유	2,035	-15.6	1	원유	1,055	19.0
2	기타 금속광물	1,048	56.1	2	기타 금속광물	1,050	165.8
3	원동기	724	0.3	3	원동기	355	-5.5
4	자동차 부품	524	-14.1	4	아연광	339	132.2
5	아연광	445	-6.7	5	자동차 부품	226	-28.5
6	동괴 및 스크랩	244	0.3	6	동스크랩	178	75.3
7	의료용 전자기기	206	9.4	7	의료용 전자기기	123	26.2
8	의료용 기기	162	-6.3	8	동광	115	147.4
9	승용차	113	-61.1	9	의료용 기기	76	-6.4
10	은	112	26.2	10	은	68	26.2

자료: 한국무역협회

□ 멕시코 주요 수출 성공 사례

합성골 의료기기 국내 기업, 멕시코 의료용품 납품기업 멕시코 N사와 위생등록 후 5년 만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합성 재료 기반 골이식재로 인간·동물 유래 이식재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위험에서 자유로움
 - 타 합성골 대비 다공성이 높아 혈관·세포 침투력이 우수, 재생 촉진 구조를 통해 골 형성 속도 개선
- 필수 인증 : 멕시코보건위험위원회(COFEPRIIS) 의료기기 수입인증 중 최고 등급인 3등급 인증 취득 필요
- 성약 소요기간 : 약 5년
- 바이어 발굴 경로
 - 코로나 기간 중 해외 기업 접촉에 어려움을 겪던 국내 합성골 의료기기 기업이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의 해외시장조사·바이어 발굴 지원 서비스를 활용 → 유망 바이어 3개사와 연결, 그중 의료용품 납품기업 N사 관심 표명
 - 무역관은 화상상담 주선 및 관련 필요 서류 구비를 지원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고위험 의료기기(1등급 포함) 인증 등록은 절차가 까다롭고 장기간 소요되나, 인증 취득 시 단일 발주 규모가 크므로 신중하되 도전적 접근 필요.
 - 한국이 동등성 협정 인정 국가로 편입됨에 따라 멕시코 내 인증 취득 소요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
 - 멕시코는 미국 등 글로벌 의료기업 생산기지가 다수 존재하며, 중남미 타 국가 대비 구매력이 높아 진출 유망성 검토 가능



멕시코 K뷰티 전문 오프라인 스토어 바이어 W사와 6개월 만에 국내 스킨케어 제품 납품 협의 완료

- 제품의 비교우위
 - 자사 브랜드와 유명 K뷰티 제품 트레이딩 병행하여 바이어 접근성 강화
 - 「토너-앰플-로션」 3단계 루틴 세트 구성하여 개별 판매 대비 마케팅 경쟁우위 확보
- 필수 인증
 - COFEPRIS 운영 허가 (Aviso de Funcionamiento) 제출 필요, 절차 간단·비용 없음·즉시 취득 가능, 유효기간 무기한
- 성약 소요기간 : 6개월
- 바이어 발굴 경로 :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주최 무역사절단 참가, 바이어 W사와 현장상담·샘플 테스트 진행
 - 2개월 후 화상상담 요청, 무역관 지원으로 수입·인증 서류 준비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멕시코는 화장품 인증 절차가 중남미 타 국가 대비 간소하고 비용 부담이 없어 내수시장 진출 초기 기업들에게 적합.
 - 다만 K뷰티 경쟁이 심화된 만큼, 차별화된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보가 필수
 - 제품 성분뿐 아니라 패키징·마케팅 차별화 전략을 국내 기업 차원에서 반드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주요 경쟁국 동향

- 중국은 멕시코의 전체 수입 대상국 중 아시아 국가로는 가장 높은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 베트남이 2~3%대의 비중을 나타냄

멕시코 수입시장 내 한국 및 경쟁국의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국가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6월 누계
중국	19.6	19.1	20.8	20.0
한국	3.7	3.3	3.7	3.6
일본	3.0	3.4	3.1	3.0
베트남	1.7	1.9	2.3	2.9

자료: 멕시코 중앙은행

□ 멕시코의對한 수입 규제

- 멕시코는 현재 18개국 대상, 대상국별 총 85개 수입 규제 적용 중('25년 4월 기준)
 - 총 85개의 수입 규제 중 반덤핑 관세가 83개, 상계관세가 2개
 - 수입 규제 중인 주요 국가는 중국, 미국, 인도, 우크라이나, 한국 등
 - 주요 분야는 철강 제품 및 제조업, 화학 및 석유파생품, 섬유, 제조업, 농수산업 등

- 한국에 부과된 반덤핑 관세 사례

- 멕시코가 반덤핑 관세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 상품은 총 4건으로 2건은 철강금속(냉연강판, 무계목강관), 2건은 화학(디옥틸 프탈레이트, 합성고무(폴리부타디엔 스티렌 고무에멀젼))

품목명	HSCODE	적용기간
냉연강판	7209160/72091701/72091801/72255091	'24.1.1.~'28.12.31.
폴리부타디엔-스티렌 고무에멀젼	40021901/40021902/40021903/40021999	'24.1.26.~'29.1.25.
무계목강관	73041901/73041902/73041999/73043910/ 73043911/73043912/73043913/73043999	'23.4.4.~'28.4.3.
디옥필 프탈레이트	29173201	'21.9.2.~'26.9.1.

자료: 멕시코 경제부 Estadistica de UPCI

다. 산업

□ 주요 산업 개요

- 최근 5년간 멕시코 GDP에서 각 산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1차 산업 약 4%, 2차 산업 약 34%, 3차 산업 약 62%

최근 5년간 멕시코 산업별 GDP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Q.
1차 산업	4.0	4.1	4.1	4.4	4.2
2차 산업	34.0	34.7	33.6	33.3	33.7
제조업	22.2	22.5	21.3	20.6	21.4
건설업	6.1	6.4	7.2	7.1	7.1
광산업	4.0	3.7	2.9	3.4	3.1
송·배전업	1.7	2.1	2.2	2.2	2.1
3차 산업 *주요 하위 산업만 발췌	62.0	61.2	2.4	62.3	62.1
소매업	10.1	10.3	10.6	10.2	10.5
도매업	10.0	10.3	10.6	9.8	8.8
부동산 임대업	9.6	9.1	9.1	8.9	8.8
운송·창고·통신	7.0	7.5	7.7	8.0	8.2

자료: 멕시코 통계청

- 특히 제조업의 비중은 2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22~'24년 최근 3년간 비중 소폭 하락하다가 (22.5% → 20.6%) '25년 2분기에는 21.4%로 반등
- 3차 산업의 비중은 62% 안팎으로 유지
 - 특히 운송·창고·통신 분야는 '25년 2분기 8.2%로 최근 5년간 '21년 7.0%에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 추세 및 이커머스 확산이 원인으로 추정됨

□ 현지 주요 산업 최근 동향

- (자동차) '24년 기준 420만 대 생산하여, 전년 대비 5.0% 증가하였으나 관세·규제 등 불확실성으로 '25년 생산량은 약 10.3% 감소 전망(KAMA, Marklines)
- (전력·에너지) 국가 전력시스템 개선 계획(2025~30년) 통해 29.0GW 신규 설비 및 송배전망 확충 추진(연방전력청 주도), 총 투자 규모는 6,246억 폐소(약 339.8억 달러) 추산
- (보건의료) 제네릭 의약품·저가 소모품 시장은 현지 기업이 주도하나, 고부가가치 의료기기·바이오의 약품은 수입 의존도가 높음

라. 투자

□ 외국인 투자 동향

- 멕시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은 최근 3년간 증가하였으며 ('22년 8.3%, '23년 0.4%, '24년 1.1%), '25년은 상반기 기준 약 34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

최근 4개년 멕시코 투자 유치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6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36,316	8.3	36,467	0.4	36,872	1.1	34,265	10.2

자료: 멕시코 경제부

□ 현지 주요 투자 유치 산업

- 제조업은 최근 3년간 투자 유치 1위를 유지했으며, 수송장비, 화학, 식품 분야가 주요 투자 업종임

업종별 멕시코 FDI 순유입액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분야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6월(기준)
1	제조업	12,711	18,081	19,881	12,333
2	금융·보험	4,640	7,193	5,915	9,155
3	건설	1,295	254	-1,970	2,619
4	광업	1,603	3,491	1,525	2,483
5	도매업	0	920	2,304	1,882

자료: 멕시코 경제부

□ 주요 경쟁국의 현지 투자 유입 동향

- 북미(미국, 캐나다) 국가의 투자 금액이 전체 약 50% 차지. 한국은 멕시코의 제10위 투자국으로 '24년 약 13억 달러를 투자하여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국가별 멕시코 FDI 순유입액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누적)	국가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6월
1	미국	15,022	13,634	16,513	14,703
2	스페인	1,638	3,774	-1,134	5,943
3	캐나다	3,780	3,472	3,216	1,750
4	독일	1,839	2,909	4,285	1,444
5	일본	215	2,399	3,789	1,284
10	한국	674	504	1,308	483
총 FDI 유입액		36,316	36,467	36,872	34,265

자료: 멕시코 경제부

□ 한국의 멕시코 투자 진출

- 한국의 對멕시코 투자액은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5년은 상반기 기준 약 1.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7.4% 감소

한국의 對멕시코 투자 진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Q.	
	금액, 건	증감률	금액, 건	증감률	금액, 건	증감률	금액, 건	증감률
투자금액	686	127.9	754	9.9	1,452	92.6	183	-87.4
신규 법인 설립 건수	20	11.1	36	80.0	24	-33.3	2	-91.7

주: 신규 법인 설립 건수는 현지법인·지점·지사 모두 포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주재국 경제부 자료와 다소 상이)

□ 우리 기업 투자 진출 사례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HE사 멕시코 법인, 멕시코 자동차 부품 시장 진출을 위한 법인 설립(2025년 下)

- (기업) HE사(자동차 부품) 멕시코 법인 : 자동차 내장 원자재 레진을 제조하여 자동차 부품사에 납품
- (성공 사례) 기존 한국 동종업계 G사 공장을 인수하여 막대한 초기 투입시간 및 투입비용 절감
 - 장기간 매수자가 없어 답답한 상황이었으나 이상적인 매수 후보인 HE사가 나타났고 2025년 양사 간 협상으로 계약 성공
- (시사점) 정확한 기업 MnA 매치메이킹으로 G사(현금 확보)·HE사(시간 절약) 모두 원-원 거래 달성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HH사 멕시코 법인, 멕시코 급식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법인 설립(2024년 上)

- (기업) HH사(급식서비스) 멕시코 법인 : 주로 공장 위주 사내 식당 서비스 제공
- (성공 사례) 경쟁사 계열사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서비스 품질을 앞세워 S사 공장 사내 식당 수주 성공
 - S사 공장은 사내 식당 교체를 검토하고 있었고 HG사와 HH사가 경쟁입찰 대상이었음
 - 통상적으로 S사가 경쟁사 계열사와 거래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HH사는 경쟁입찰에 매우 불리한 상황
 - 그럼에도 불구하고 HH사는 음식 품질과 사내 식당 운영 노하우를 앞세워 2,000 식수 인원의 S사 수주에 성공
- (시사점) 과거 타사 공장 사내 식당의 문제점을 신속 파악·개선한 경험을 발주처에 어필한 것이 주효

□ 현지 투자 진출 시 진입장벽

- (인사·노무) 멕시코 연방노동법에 기반한 강력한 노동자 보호
 - (임금)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률로 인건비 부담↑ * ('22) 20%↑ → ('23) 20%↑ → ('24) 12%↑
 - (해고)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해고수당 필히 지급 * 경우에 따라 90일 급여+연차수당까지 부담
 - (국제 기준) USMCA에 따라, 자동차(부품)는 노동부가 가치 요건(LVC)* 준수 필요
 - * 근로자의 임금은 시간당 16불 이상이어야 하며, 적용 비율은 차종별 상이
- (특정 산업 투자 금지 등 규제) 대부분 산업에 외국인투자 허용(Negative-list)
 - 육상물류·여객운송·신탁업은 투자 금지이며, 국영산업·전략산업은 투자 제한
 - * (국영산업) 석유 탐사·채굴, 공공전력 판매, 핵발전, 방사성 광물, 우편, 화폐주조 등
 - * (전략산업) 민간항공, 해운·항만 서비스, 라디오방송, 신문출판 등

2. 유망 산업

가. 자동차·부품

□ 개요

- 자동차 산업 규모
 - (생산) 경량차(light vehicles) 세계 7위, 중·대형 상용차(heavy-duty vehicles) 세계 5위 생산국. '24년 기준 총 420만 대가 생산되어 그중 약 363만 대(86.6%)를 수출
 - * 멕시코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 GDP의 18%, 국가 GDP의 3.6%를 차지

멕시코 자동차 생산 동향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기준)	(단위: 대수, %)
생산	3,509,072	4,002,047	4,202,642	5.0
수출	3,032,519	3,478,415	3,638,552	4.6
수출/생산 비율	86.4	86.9	86.6	-
판매	1,134,443	1,416,429	1,555,115	9.8

자료: 생산·판매(세계자동차산업협회), 수출(멕시코 통계청)

- (수출) 경량차 세계 6위, 중·대형 상용차 세계 4위 수출국으로, '24년 기준 완성차(HS8702~8704) 수출액은 약 1,020억 달러로 추산되며, 전년 대비 6% 증가(멕시코 통계청)
 - * 23년 기준 멕시코에서 수출된 상위 차종은 SUV 중 GM Equinox(13.7%), Audi Q5(9.9%), Ford Bronco Sport(8.8%), 픽업트럭 중 Toyota Tacoma(29.3%), Stellantis RAM 2500(24%) 등임

• 자동차 부품 산업 규모

- (생산) 세계 4위의 자동차 부품 생산국으로, 미국의 1위 수입국. '24년 생산 규모는 1,21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 성장
 - 전기·전자, 변속기·클러치, 내장재·좌석, 엔진·부품, 현가·조향이 주요 생산 품목
- (수출) '24년 기준 1,060억 달러로 멕시코 최대의 수출 산업
 - * 미국의 자동차 부품 전체 수입의 43%가 멕시코 제품(멕시코 자동차 부품의 87%에 해당)
 - * 주요 수출국은 미국(87%), 캐나다(3.9%)로 대부분 북미 자동차 시장으로 공급

• 수입 동향

- (완성차) '24년 기준 멕시코 수입차 1/5 이상이 중국산(30.3만 대)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
 - * 주요 수입국은 중국(30.3만 대), 미국(12.7만 대), 브라질(12.1만 대), 일본(9.5만 대), 한국(9.4만 대) 순임
- (자동차 부품) '24년 기준 기어박스, 차체, 섀시가 수입의 50% 이상 차지
 - * 주요 수입국은 미국(52.6%), 중국(13.9%), 독일(7.4%), 일본(5.6%) 순이며 한국은 제6위 수입국(4.3%)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미국 관세 부과 이후, GM, 현대-기아 등 일부는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거나 미국 판매 가격 조정 등으로 대응
- 현지 생산 제품은 USMCA 준수율을 높여 무관세 수출 유지를 통해 관세 충격 완화

멕시코 자동차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G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멕시코 라모스 아리스페 공장에서 생산하는 Chevrolet Blazer와 산루이스포토시에서 생산하는 Chevrolet Equinox를 각각 테네시, 캔사스 공장으로 이전키로 발표('25.6) • 미국 미시간, 캔사스, 테네시 공장 확장 및 현대화에 향후 2년간 40억 달러 투자 발표('25.6)
포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Maverick, Mustang Mach-E, Bronco Sports 미국 내 딜러 도매가 최대 2,000달러까지 인상('25.5)
현대·기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Tucson 생산 일부를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공장으로 이전키로 발표('25.4)
닛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생산 능력 과잉,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으로 멕시코 모렐로스 CIVAC 공장을 폐쇄하고, 생산은 아구아스칼리엔테스 공장으로 통합('25.10)
도요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미 시장용 중형 픽업트럭 Tacoma 생산을 티후아나·과나후아토 공장으로 통합
중국 O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AC를 선두로 한 중국 OEM들은 멕시코 현지 투자 및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했으나 미·중 무역 갈등 심화로 전망이 불투명

자료: Marklines

- (전기차) '25년 9월 누적 전기·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수는 100,353대로, 전년 동기 대비 17.0% 증가하는 등 최근 친환경 자동차 부문 성장세 뚜렷

□ 기타(향후 전망, 기회 요인 등)

- (USMCA) '26년 USMCA 개정은 멕시코 자동차·부품 산업의 큰 변수로 작용
 - 주요 쟁점은 중국산 부품 규제 강화, 역내부가가치생산 비율 상향임
 - * 자동차 부품 세번변경기준도 엄격하게 관리 및 강화할 가능성이 높음

※ 바이어 인터뷰

“멕시코 전기차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미국, 중국, 한국 등에 비해서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는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충전기들은 노후되어 현재 중국산 차량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Gb/t 프로토콜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넥터 유형에 대한 규제 부재로 모든 충전기가 차량을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는 TARUK(정부 주도 최초 청정 교통 프로젝트)의 예시처럼 세계 최대 규모의 전기버스 보유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 멕시코 전기 버스 바이어 M사 -

나. ICT·디지털

□ 개요

- 현지 산업 규모
 - '24년 기준 정보·통신·기술 분야(ICT) GDP는 4,750억 폐소(약 257억 달러)로, 전년 대비 3.5% 증가하였고 전체 GDP의 약 1.4%를 차지
 - * 최근 디지털 보안 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인프라 공공 투자 확대 등이 맞물려 산업 성장세 뚜렷
- 최근 수출입 동향
 - (ICT·디지털 장비) 24년 기준 전자집적회로(HS 8542), 전화기·무선통신기기(HS 8517), 전기회로(HS 8536), 절연케이블(HS 8544), 배터리(HS 8507)가 수입의 50% 차지
 - * 주요 수입국은 미국(40.3%)과 중국(20.8%)이며 한국은 3.7%로 3위 수입국

멕시코 정보처리·통신기기 수입 동향 (HS85)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HSCODE	2022년	2023년	2024년 (기준)	증감률 (24/23)
1	프로세서 및 컨트롤러	854231	17,139	15,657	18,715	19.5
2	무선망 장비	851762	8,135	7,884	8,224	4.3
3	스마트폰	851713	127	5,999	6,636	10.6
4	기타 집적회로	854239	127	6,384	5,489	-14.0
5	레이저 리더기	852411	20	3,276	4,435	35.4
6	솔리드스테이트 저장장치	852351	3,497	2,581	4,418	71.2
7	방송·수신기·카메라 등 통신기기 부품	85299	3,544	3,031	3,633	19.8
8	인쇄회로기판(PCB)	85340	3,520	2,986	3,301	10.5
9	전화기 및 통신기기 기타 장치	85177	45	1,871	1,980	5.9
10	메모리(집적회로, DRAM 등)	854232	1,332	1,152	1,172	1.7

자료: UN Comtrade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도시 인프라) 공공 와이파이, 정부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인프라, 도시 시설용 센서 확충 등 데이터 기반 관리 시스템 도입 증대
- (교통·물류) 대도시 중심으로 지하철·광역버스·공공자전거 통합 교통 카드 및 전자 결제, 실시간 교통 정보 및 모니터링, 차량 안전·감시용 카메라 설치 확대
- (행정서비스) 디지털 신원인증 시스템 도입, 국가 투자 디지털 창구 플랫폼 도입 등

멕시코 ICT·디지털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Seguritech (디지털 감시, 센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 보장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SeguriMan' 출시(‘25.9) 전문 요원 24/7 상시 대기 및 긴급 대응 지원 SOS 알림 버튼, 실시간 위치 추적, 운영 리포트 및 통계 제공 등 Light/Enterprise/Premium 3가지 서비스 모델 제공해 맞춤형 선택 가능
Eyssa Mexicana (교통 관제 솔루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멕시코 전국 단위 지능형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 구축 교통 흐름 최적화, 대중교통 및 보행자 우선을 위한 스마트 신호등 개발 타마울리파스 등 주요 멕시코 주(州) 도로 현대화 공공 입찰 참여 도시 개발, 교통 계획 등 국토 인프라와 관련한 공공 정책 의사 결정 지원
Argus Telematics (차량 원격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텔레매틱스 및 차량 분야 IoT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차량 위치 추적, 운전자 행동 분석, 차량 비용 모니터링 등 종합 플랫폼 확대 멕시코 전역에 기술자와 설치망 구축, 물류 기업이 자체 브랜드로도 활용 가능
OS City (디지털 신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Gov-Tech 솔루션 구축 멕시코 주정부와 협력해 신분증, 인증서와 같은 행정 서류 발급 절차 온라인화 공공 기관 간 상호 호환 가능한 인터페이스 구축

자료: 각 회사 홈페이지, 현지 언론 종합

□ 기타(향후 전망, 기회 요인 등)

- (현지 수요) 통신 인프라 장비, 스마트시티, 보안·기술 등 전방위 수요 확대
 - (통신 인프라) 광섬유, 라우터, 스위치, 배터리 백업 시스템 등 통신 부품 수요 증가
 - (스마트시티) 지능형 교통 시스템, 도시 데이터 통합 관제센터, AI 기반 범죄 예측 장비 등 관련 인프라 관심 증대
 - 멕시코시티, 과달라하라 등 대도시 중심 스마트시티 구축으로 인한 디지털 도시 인프라, 교통 관제 시스템 수요 증가
- * 단, 지역 간 디지털 격차 및 보안·개인정보 보호는 도전 과제
- (사이버 보안) 랜섬웨어, 데이터 유출 사례 증가 및 클라우드 확산으로 수요 지속 성장

※ 바이어 인터뷰

“최근 멕시코 내 고속도로 차량 절도 문제가 대두되면서 차량 텔레매틱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절도범들이 차량 도난 시 불법 GPS 재밍기를 활용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머가 감지되는 즉시 차량의 엔진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술도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2024년 멕시코전국차량보호 협회(ANERPV) 통계에 따르면, GPS 단말기를 설치한 도난 차량의 78%가 회수되었고, 특히 도시에서는 운전자가 앱으로 즉시 차량을 잠글 수 있어 회수율이 더 높습니다. 경찰도 이 솔루션에 익숙해져 대응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통 관제 솔루션 수요는 앞으로도 커질 것입니다.”

- 멕시코 차량 원격 관리 솔루션 회사 A사 -

다. 바이오·의료

□ 개요

- 현지 산업 규모
 - (의약품) '24년 멕시코 의약품 시장 규모는 약 198억 달러로 추정되며 '33년까지 연평균 6.9% 성장 전망(Statista)
 - * WHO(국제보건기구), BMI 등 국제기구 및 시장분석기관에 따르면 멕시코 1인당 의약품 지출은 '24년 약 131.8달러이고, '29년에는 약 152.4달러로 15% 내외 증가 예상
 - (의료기기) '24년 멕시코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약 79.9억 달러이며, '34년까지 연평균 5.3% 성장하여 약 133.9억 달러로 확대 전망(Statista)
- 최근 수출입 동향
 - (의약품) 수입 규모는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로 미국(25%), 독일(15%)이 전체 수입의 약 40%를 차지하며, 품목별로는 일반 의약품*의 비중이 전체 수입 품목의 약 40%
 - * 항암제, 항결핵제, 아스피린, 항히스타민제 등

멕시코 의약품 품목별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HSCODE	2022년	2023년	2024년(기준)	비중	증감률('24/'23)
1	일반 의약품	300490	2,192	2,876	3,531	40.0	22.7
2	호르몬제	300439	262	348	364	4.1	4.6
3	항생제	300420	185	164	142	1.6	-13.5
4	비타민제	300450	61	41	70	0.8	70.8
5	스테로이드	300432	48	52	66	0.7	26.4

자료: UN Comtrade

- (의료기기) 수입 규모는 약 185억 달러, 미국(45%), 중국(15%)이 전체 수입의 약 60%를 차지하며, 품목별로는 기타 의료기기*, 외과용 기구, 전기진단기기 등을 주로 수입

* 외과수술용 기기, 피부과용 기기, 내시경 등

멕시코 의료기기 품목별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HSCODE	2022년	2023년	2024년(기준)	비중	증감률('24/'23)
1	기타 의료기기	901890	2,217	2,636	3,121	16.8	18.4
2	기타 의료용, 외과용 기구	901839	731	793	953	5.1	20.1
3	전기진단기기	901819	336	436	437	2.4	0.2
4	非유리 렌즈	900150	280	283	402	2.2	42.2
5	봉합재	901832	255	272	360	1.9	32.4

자료: UN Comtrade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의약품) 멕시코 현지 제약사는 Genomma Lab, Liomont, Silanes 등이 있으며, 제네릭·OTC 중심으로 시장을 주도 중이고, 다국적 제약사(화이자, 로슈, 노바티스, 사노피 등)는 멕시코시티, 과달라하라 등에 생산 거점 운영
- (의료기기) 주요 기업은 Medtronic(티후아나에 6개 공장 운영, 약 15,000명 고용), Stryker(바하칼리 포르니아), Siemens Healthineers(티후아나), Philips Healthcare(멕시코시티), GE Healthcare(몬테레이) 등이 대표적임
 - 멕시코 의료기기 시장은 수입 의존도가 80% 이상이며, 글로벌 기업들은 현지 생산 후 주로 미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도 늘고 있음

□ 기타(향후 전망, 기회 요인 등)

- (의료관광) 멕시코는 의료관광 세계 5위 국가로 합리적인 가격,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통해 미용·성형 등 의료관광에 적합한 국가로 부상하고 있음
 - 매년 최대 3백만 명의 사람들이 의료 목적으로 멕시코를 방문, 치과 및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간접 수요 확대
- (만성질환) 국제당뇨병연맹(IDF) 자료에 의하면, '24년 기준 멕시코 성인 인구의 약 16.4%인 1,358만 명이 당뇨 환자로 이는 전 세계 상위권 수준
 - 매년 수십만 명 이상 당뇨 환자가 증가하며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혈당 모니터링 등 의료기기 수요가 중기적으로 증가
- (규제·인증) 멕시코보건위원회(COFEPRIS)는 의료기기 등록과 관련하여, 동등성 인정 범위 확대, 검토 기간 단축 등 간소화 내용 포함한 신규 조치 발표('25년 9월 시행)
 - 국제의료기기규제포럼(IMDRF) 회원국(한국 등 12개국) 발급 인증도 인정되어, 향후 한국에서 승인된 의료기기 검토 기간은 평균 8개월에서 30영업일 내로 감소

※ 바이어 인터뷰

“일반 의약품(OTC)의 경우 미디어 광고와 마케팅 투자가 필수이며, 전문 의약품 시장의 경우 물량 기반 수익성 구조이되 강력한 영업 인력 확보가 핵심입니다. 멕시코 의약품 시장 진입 시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혹은 외국계 제약사와 협력 또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멕시코 의료계는 신규 브랜드에 개방적인 편이며, 특히 협약이나 라이선스를 통해 진입하는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산 위조 약품 등에 대한 고정관념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나 미용·의약품 분야에서 한국산은 프리미엄 이미지로 인식돼 있으니, 이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멕시코 제약회사 A사 -

라. K-소비재(화장품, 식품)

□ 개요

- 현지 산업 규모
 - (화장품) '25년 멕시코 화장품 시장 규모는 약 96.5억 달러이며 '30년까지 12.1% 성장하여 약 111.8억 달러 규모 예상(Statista)
 - (식품) '25년 멕시코 식품 시장 규모는 약 2,112억 달러이며 '30년까지 33.1% 성장하여 약 2,820억 달러 규모 예상(Statista)
- 최근 수출입 동향
 - (화장품) 수입 규모는 최근 3년간 증가 추세, 주요 3개국(미국, 프랑스, 콜롬비아) 수입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품목별로는 스킨케어(HS CODE 330499) 제품이 74.5%로 높은 비중

멕시코 화장품 품목별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HS CODE	2022년	2023년	2024년(기준)	비중
1	스킨케어	330499	524	641	767	74.5
2	립 메이크업	330410	57	92	117	11.4
3	아이 메이크업	330420	71	81	76	7.4
4	파우더류	330491	33	36	41	4.0
5	매니큐어류	330430	33	33	29	2.8

자료: 멕시코 중앙은행

- (식품) 수입 규모는 최근 3년간 증가 추세(HS CODE 01~24류 기준), 對미국 수입이 67%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품목으로는 곡물(17.6%)과 육류(16.9%) 비중이 전체 3분의 1 이상 차지

멕시코 식품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HS CODE	2022년	2023년	2024년(기준)	비중
-	전체	01~24류	42,352	42,799	45,284	-
1	곡물	10	8,886	8,587	7,978	17.6
2	육류	02	6,008	6,405	7,673	16.9
3	종자, 과실 등	12	6,244	5,755	4,926	10.9
4	낙농품 등	04	3,078	2,950	2,931	6.5
5	조제식료품	21	1,914	2,101	2,555	5.6

자료: 멕시코 중앙은행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화장품) 주요 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 P&G, Kimberly-Clark, Unilever, Henkel, L'Oréal, Natura 등
 - (동향) 글로벌 기업·브랜드 중심으로 시장 편성되어 있고, 최근 소득 수준 향상으로 고급 안티에이징, 피부관리 화장품 등 프리미엄 분야 성장세 뚜렷
- (식품) 주요 기업은 Grupo Bimbo, Coca-Cola, Sigma Alimentos, Gruma, Grupo Lala 등
 - (동향) 영화, 드라마 등 K-콘텐츠 인기를 기반으로 기업들은 프로모션 캠페인에 이를 적극 활용 중

〈[참고]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2’와 멕시코 유통·식품기업 협업 사례〉



- 우리 기업 협업 수요
 - (리테일·유통사 협업) Amazon, Mercado Libre, Costco 등 현지 대형 온·오프라인 B2C 유통사와 연계한 K-beauty존, K-food존 활용
 - (콘서트·한류 이벤트 활용) K-pop 콘서트 시 팝업스토어, 프로모션 등 병행하여 굿즈, 뷰티, 식품 교차 판매(오프라인 접점 확대 시 높은 효과 기대)
 - (온·오프라인 채널 융합) 기존 한류 전문 온라인 몰과 오프라인 대형 리테일을 연결하는 옴니채널 협력 모델 구축

□ 기타(향후 전망, 기회 요인 등)

- (오프라인 유통 채널 확대) 기존 온라인 위주로 판매되던 한국 화장품이 최근 Sanborns, Sally Beauty 등 현지 오프라인 채널 입점 문의까지 이어지며 인기 확대
- 멕시코 K-화장품 주요 온라인 유통 채널은 Uyubeauty, Kosmetics, Momjibeauty, Needbeauty, Mdcparis 등이 있음
- (한국 아티스트 활용) BLACKPINK, BTS 등 K-pop 스타 이미지를 활용한 화장품·스킨케어는 팬덤 충성도가 높으며, 식품도 K-드라마·영화 노출로 유통 기회 확대
 - 공식 굿즈, K-beauty 연계 퍼스널 케어 제품, K-드라마·영화 속 식품 인기 구가

□ 멕시코시티무역관 화장품 분야 글로벌 스태프 Ana Caballero 인터뷰

Q1. 최근 멕시코 시장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K-뷰티 제품의 기회 요인은 무엇입니까?

- 현재 멕시코의 많은 유통업체들은 한국 브랜드와의 독점 유통 계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와 마케팅, 유통망 확장을 통해 브랜드를 함께 성장시키는 전략입니다. 이런 방식은 가격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며, 병행 수입으로 인한 시장 과잉 및 가격 하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K-뷰티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Q2. 멕시코 내 K-뷰티 브랜드의 최근 성공 사례를 소개해 주십시오.

-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아마존 멕시코(Amazon Mexico)의 움직임입니다. 아마존은 2025년 말까지 K-뷰티 전용 카테고리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는 플랫폼 내에서 이미 입점한 한국 브랜드들을 위한 독립적이고 공식적인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Celimax, COSRX, Parnell, Huxley, Missha, APIEU, Medipeel, Numbuzin, Nine Tails, VT Cosmetics, Nineless 등 이미 현지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브랜드들이 공식 브랜드 스토어 형태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Q3. 온라인 외에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변화가 있습니까?

- 네, 최근 몇 년간 멕시코의 K-뷰티는 온라인 판매 중심에서 벗어나 오프라인 전문 매장 확장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기존에는 Mercado Libre, Amazon, Walmart, TikTok Shop, Coppel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주를 이루었지만, 이제는 한국의 Olive Young 콘셉트에서 영감을 받은 오프라인 매장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Farmacias Paris와 Mundo Dermocosmético를 운영하는 Asuky Med는 새로운 K-뷰티 전문 매장인 Euphoria를 출범시켜 멕시코 중부 지역에 4개 매장을 열었습니다. 매장마다 80개 이상의 한국 브랜드를 취급하며, Euphoria는 멕시코 내 거의 유일한 K-뷰티 전문 리테일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계속 확산 중이며, 앞으로 더 많은 유통업체들이 Sephora·Ulta Beauty 같은 글로벌 리테일 체인에 공급하거나, 자체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 Euphoria 웹사이트: <https://euphoria.com.mx/>

Q4. 멕시코에서 K-뷰티 독점 파트너십 형태의 대표적인 협력 사례가 있습니까?

- 대표적인 예로, 멕시코 화장품 유통사 Azkami가 2025년 한국 스킨케어 브랜드 Teen Again을 멕시코 시장에 공식 론칭했습니다. 현재 Teen Again은 HEB, Liverpool, Sanborns 등 주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 중이며, Walmart, Amazon, Mercado Libre 같은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유통되고 있습니다. 또한, Azkami 자체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Free the Rabbit을 통해서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Q5. 앞으로 멕시코 K-뷰티 시장의 방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 K-뷰티는 멕시코에서 단기 유행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장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가격 대비 가치”뿐 아니라, 한국 브랜드 특유의 혁신, 감성, 효능 중심 제품에 대해 점점 더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브랜드 독창성과 유통 전략, 그리고 현지화된 마케팅이 시장 성공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3. 협력 기회

가. 통상·G2G

□ 한–멕 FTA 추진 경과 및 현황

- (경과) '06년 한–멕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개시하였으나, '08년 협상 중단됨
- (재개 및 최근 동향) 한–멕 FTA 협상 재개 선언('22.3월), 제1차 외교장관 회의('23.5월), 한–멕 친선 FTA 포럼('23.7월), 제2차 외교장관 회의('23.12월), 한–멕 경제 포럼('25.6월) 등
- (전망) 현재 한–멕 FTA 협상은 교착 상태로, 교역국 다변화를 위해 멕시코가 가입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음(KDI)



참고 사례

- 한–멕 FTA 미체결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멕시코 입찰 및 수주 제한
 - 멕시코는 「공공부문 조달법(LAASSP)」과 「공공사업법(LOPSRM)」에 따라 조달 참여 자격을 가장 우선적으로 멕시코 기업 차순위로 FTA 체결국 기업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GPA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임
 - FTA 미체결국 기업은 멕시코 국제 입찰에서 ① 자격 제한, ② 가격 우대 배제, ③ 관세 부담, ④ 국영기업 발주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어 미체결국 기업은 현지 파트너(조인트벤처, 현지법인 등) 없이는 사실상 입찰이 불가능함
 - 한국 기업은 멕시코 현지 수요와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인프라 확충, 철도·항만·공항 현대화, 방산·에너지 프로젝트 등 대규모 공공사업 국제 입찰에서 참여에 제약을 받아오고 있음
 -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멕시코 내 시장 기회를 온전히 활용하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정부 간 조달협정 종장기적으로는 한–멕 FTA 체결이 필요한 상황

□ 국가 간 협력 유망 분야

- (방산) 멕시코국방부(SEDENA)는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15년 이상 노후된 차량 교체사업(1,000대 규모), 이동형 레이더 2기 도입, 전술용 드론 도입 등 프로젝트 추진



참고 사례

- 국내 기업 B社, 멕시코 육군 4X4 노후 차량 교체 사업 입찰 참여
- B社는 25년 현지 협력 벤더로부터 멕시코 국방부 주관 “구형 험비 교체사업”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동입찰에 참여했으며 이후 현지에서 차량 테스트를 시행하고 최종 협상 대상자로 선정됨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멕시코 방산 프로젝트의 경우 멕시코군에 이미 입찰 경험이 있는 에이전트 등을 대상으로 비공개 입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현지 파트너 혹은 군 관계자와의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
 - 따라서 멕시코와 언어·지리적 제한이 있는 우리 기업들은 현지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는 KOTRA의 현지 마케팅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적시에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
- (항공우주) 세인바움 행정부는 '30년까지 멕시코를 중남미 최초 세계 10대 항공 우주 산업 중심국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며, 관련하여 양국 간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
 - * 멕시코 우주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멕시코 내 발사장 구축 공동 타당성 조사 협력 약정 체결('24.6월)

나. 프로젝트

□ 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

- 멕시코는 국가 인프라 계획(2025)과 더불어 니어쇼어링에 따른 급격한 해외 기업 진출 확대로, 노후 전력망, 상하수도 시설 현대화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 활발히 추진 중
 - (에너지) 멕시코전력청(CFE)는 '30년까지 송배전 인프라 확충, 공공 발전 확대를 위한 12개 추가 발전소 건설, 집광형 태양열 및 수소 분야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발표
 - * 이에 따라 송배전 기자재, 모듈, 변압기 등의 수요 증가 예상
 - (인프라) 세인바움 대통령은 '국가 인프라 계획 2025'를 발표하여 철도뿐 아니라 고속도로, 항만, 공항 개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헌법 개정('25.6월)을 통해 여객 수송 열차를 국가 우선 과제로 지정

멕시코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분야	프로젝트	사업기간	예산 규모
철도	멕시코시티-푸에블라-베라크루스 철도	2026~2030	20억 달러
공항	칸쿤 국제공항 확장	2025~2028	4.5억 달러
항만	베라크루스 항만 2단계 확장	2025~2029	8억 달러

□ 기업 차원의 협력 유망 분야

- (전력기자재) 멕시코의 송배전 확충 및 신재생 발전 프로젝트 확대에 따라 고품질 기자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기업이 강점을 보이는 고압 변압기, 스마트 계량 인프라,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분야가 유망
- (기계장비) 인프라 건설 및 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장비의 약 80%가 해외 수입이며 관세는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으로 중국산 대체 수입처에 대한 수요가 높음



성공 사례

- 25 멕시코 스마트시티 로드쇼 참가한 국내 기업 A社, 멕시코시티국제공항(AICM) 현대화 프로젝트 참여
- A社는 멕시코시티무역관의 주선으로 AICM 관계자와 면담을 가진 뒤, 공항 내 노후화된 CCTV와 LCD·LED 모니터 교체 계획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됨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스마트시티 로드쇼와 같은 KOTRA 주관 현지 행사는 국내 기업들에게 단순한 홍보를 넘어 실질적인 사업 기회 발굴의 장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식 채널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프로젝트 관련 핵심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음
 -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멕시코 시장 진출 시 KOTRA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현지 정부 및 기관과의 연결 고리를 강화하고, 동시에 전시회·로드쇼·포럼 등 현지 행사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다. 공급망(자원개발)

□ 자원 개요

- (주요 자원) 멕시코는 세계 2위 형석(Fluorspar) 생산국으로, 형석은 반도체 식각 및 이차전지 등에 사용되는 핵심소재인 무수불산의 원료
 - '24년 전 세계 형석 생산량은 총 950만 톤이며 멕시코(120만 톤)는 중국(590만 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생산국
- * 멕시코 주요 광종 및 전 세계 기준 순위 : 은(1), 형석(2), 납(4), 아연(6) 등

멕시코의 주요 광물 정보

광종	HS CODE	생산량('24년, 톤)	매장량(톤)	수출액 ('24년, 백만 달러)
은	7106	6,300	37,000	3,006
형석	252921	1,200,000	68,000,000	45
납	2607	180,000	5,600,000	2,441
아연	2608	700,000	14,000,000	1,280

자료: 미국 지질조사국(USGS), 멕시코 중앙은행

□ 협력 가능 분야

- (무수불산) 멕시코와 한국은 반도체, 특수 화학물질, 불화수소 등 기술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양국의 글로벌 경쟁을 강화할 수 있음
 - * 한국의 무수불산 중국산 수입 비중은 94.9%로, 멕시코 협력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 추진 가능
- (리튬) 멕시코는 리튬 매장량 세계 9위, 개발 초기 단계라 단기간 내 공급은 제한적이나, 전고체·소재 가공 수요가 확대될 전망
 - * 우리 기업은 배터리 소재 등 가공 협력에서 기회가 있을 전망이며 리튬 정제 공정, 고순도 리튬 생산 기술, 리튬 가공 설비 구축 등에서 기술 협력 가능성 있음
- (철강) 멕시코는 중남미 2위 철강 생산국('24년 약 1,800만 톤임). 철강은 자동차·건설 공급망 핵심 소재로, 북부·중부 클러스터에 철강 제조·가공 시설 밀집
 - * 자동차·배터리 산업 규모 확대에 따라, 우리 기업은 철강·부품·조립 통합 밸류체인 참여를 고려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제철 솔루션, 수소환원 제철 기술도 유망

III. 진출전략

- | | |
|-----------------|----|
| 1. PEST/SWOT 분석 | 42 |
| 2. 진출전략 | 44 |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PEST 분석



정치정책(Political)

- ‘플랜 멕시코’ 연계 국내 산업 육성, 세제 인센티브와 같은 친투자 정책
- USMCA 재협상을 앞두고 협정의 안정적 지속과 시장 신뢰 확보 모색
- 철강·섬유·신발 등에 수입 규제 적용, 투자 심사 강화 등을 통한 미국과의 중국 견제 동조화
- 보건, 교육, 주거 등 사회복지 분야 내 정부 투자 확대



경제(Economic)

- 지속적인 기준 금리 인하를 통한 내수 소비 회복세
- USMCA 제도의 적극적 활용에 따라 미국 신행정부 관세 영향 상대적 미미
- 외국인 투자 유치 금액의 견고한 성장세



사회문화(Social)

- 치안 부재에 대한 사회적 불안 확산으로 보안 장비 및 인프라 수요 증가
- 한류 콘텐츠의 파급 효과가 라이프스타일(뷰티·식품 등)로 확대
-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률 확대와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디지털 보급률 확산
- 평균 연령 30세의 청년층 중심의 인구구조로 안정적인 노동 공급 기반



기술(Technological)

- 대도시 중심으로 행정·교통·도시 인프라 분야 디지털화 가속화
- 반도체·전기 자동차 등 첨단산업 분야 기술 협력 수요 증가
- 2025~2030 전력확장계획 등 통신 인프라 구축에 대한 수요 다대

SWOT 분석

강점(Strength)



- 전자·IT 등 첨단 기술 분야 글로벌 경쟁력 보유
- 삼성·LG·기아 등 브랜드 인지도 및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도
- 멕시코 내 기존 투자 및 생산 거점 축적, 북미 OEM·ICT 기업과 협업 경험 기반 보유
- K-뷰티, K-푸드 등 한류를 통한 한국산 소비재에 대한 높은 인지도

약점(Weakness)



- FTA 미체결국으로 체결국 대비 경쟁력 약화
- 원거리로 인한 높은 물류비 및 긴 운송시간
- 멕시코 현지 정책 변화, 유통망 대응 역량 및 파트너십 부족

기회(Opportunity)



- 미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USMCA 회원국을 활용한 니어쇼어링 수혜
- 에너지·국방·교통·통신 인프라 등 공공 프로젝트 활성화
- 플랜 멕시코를 통한 국내 산업 육성, 규제 완화와 같은 친투자 정책
- 디지털화로 인한 AI·ICT·첨단 기술 수요 증대

위협(Threat)



- 아시아 수입 규제 강화, 관세 부과에 따른 기업 수출 경쟁력 약화
- 미국 신행정부 보호무역주의, USMCA 개정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심화
- 치안 불안정 및 화물 도난·범죄로 인한 물류 비용 증가

SO 전략(적극적 공격-역량 확대)

-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기반으로 플랜 멕시코 및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확대
- 멕시코 내 생산거점을 활용해 첨단 기술 수요 확대와 니어쇼어링 프로젝트에 선제적 대응

» 한국의 기술을 결합한
투자·컨소시엄으로
전략 산업 진출 확대

ST 전략(차별화전략-강점 활용)

- 글로벌 공급망 협력 경험, 고품질을 활용해 중국산과 현지 경쟁 업체와 차별화
- 브랜드 신뢰도를 기반으로 안정적 공급망 관리, 사후 서비스 체계 강화

» 고부가가치 시장 집중,
사후 관리 제고를 통한
신뢰도 확보

WO 전략(단계적 시책-기회 포착)

- 현지 기업·정부기관과 적극적인 파트너십 구축
- 멕시코 내 생산·조립·현지화 확대를 통해 USMCA 충족 비율 준수 및 니어쇼어링 기회 활용

» 생산거점 활용을 통해
물류 효율성과 시장
접근성 확보

WT 전략(방어/철수-위협 대응)

- 한-멕 FTA 재개 협상을 위한 우호 여론 구축
- 현지 물류 보안 및 보험 체계 강화

» 제도 변화 대응 체계 마련,
물류 인프라 보완을
통한 리스크 최소화

2. 진출전략

2026년 진출전략

주요 이슈 또는 산업

인프라 확충, 방산
현대화, 디지털 전환
정책 수요 포착

온라인 유통망 및
팝업스토어 활용
K-소비재 수출 지원

트렌드와 정책·규제
분석 통한
바이오 의료 시장 진출

미 관세에 따른
글로벌 무역구조 재편

KOTRA가 제시하는 진출전략



- 인프라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정부 조달 수요에 적시 대응
- 현지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보안·치안 사업 참여

-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활용한 적극적인 현지 진출 추진
- 한류를 활용한 신규 식품 바이어 발굴

- 규제·인증 제도 파악과 유력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현지 의료 시장 선점

- 미 관세 대응 전초기지로서의 투자 진출 거점화

전략 ①**인프라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정부 조달 수요에 적시 대응****전략 수립 배경**

- 멕시코 정부는 GDP의 약 6% 인프라 투자, 철도·고속도로·항만·공항 현대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 우리 기업 기술 활용 패키지형 사업 제안, 정부 조달 수요 대응하여 현지 시장 진출

□ 현지 동향

- (인프라 확충) 2026년 인프라 분야에 9,601억 폐소(약 518억 달러) 공공 투자가 집행될 예정. 철도·항만·공항·도로 확충 및 도시 개선 사업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지정
- (니어쇼어링 효과) 미국과 국경이 인접한 멕시코 북부 지역으로 해외 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건설·전력·물 인프라 개선 수요 증가

멕시코 인프라 분야 주요 프로젝트

분야	프로젝트 주요 내용
철도	멕시코 3대 주요 도시 간 연결 및 북부 미국 국경 지역까지 확장 (약 253억 달러)
도로	약 3,000km의 13개 고속도로 건설 및 확장을 통한 유통망 개선 계획 (약 94.1억 달러)
항만·공항	12개 항구와 5개 공항의 현대화 및 확장 (통신설비 및 통관시스템 개선 포함)
물	약 15.7억 달러 투자, 전국 상수도 공급·하수 처리·수질 개선 사업 추진

□ 유망 품목

- (건설장비) 굴삭기·크레인·교량자재 등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건설기계 수요 증가
- (스마트그리드) 연방전력청(CFE) 송배전망 현대화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스마트 계량기, 에너지 관리 시스템, AI 기반 수요 예측 솔루션 등 기술 유망
- (통신부품·발전장비) 통신·전력 인프라 확장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모뎀, 케이블, 전동기 및 발전기, 터빈 및 관련 부품,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진출 가능성 있음

□ 진출전략

- (기술 기반) IoT 융합 솔루션(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운영·교육 서비스) 등 기술 우위를 기반으로 차별적 시장 입지 확보 및 시장 선점 효과 강화
- (정부 수요 대응) 멕시코 정부의 인프라·에너지·ICT 계획과 연계된 조달 수요 참여
 - * KSP·EIPP와 같은 ODA 협력 사업과 접목하여 정책 수립과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부터 솔루션 제안, 사업 설계 반영을 추진하여 장기적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

'26년 멕시코 인프라 분야 주요 무역관 사업(잠정) 안내

제목	시기(잠정)	규모(잠정)	내용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3분기	(국내) 100개사 (해외) 40개사	인프라·프로젝트 분야 발주처-기업 간 비즈니스 상담

전략 ②**현지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보안·치안 사업 참여****전략 수립 배경**

- 멕시코 정부는 치안 강화, 범죄 예방을 위해 스마트 안전·보안 기술 도입 추세
- 현지 파트너십 구축, 전시회 활용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보안 시장 진출 추진

□ 현지 동향

- (치안 상황) '24년 멕시코의 살인율은 10만 명당 23.3명(IEP)이며 OECD 평균(2.6명)의 9배 수준으로, 치안 유지, 마약 카르텔 대응, 재난 대응, 불법 이민 통제 등은 우선 과제
- (범죄 예방) 멕시코 정부는 치안 강화를 위해 중앙 보안 관제센터(C5*)를 확대할 예정이고, 차량 절도 예방 목적의 GPS 모니터링 기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 25.8월 C5(Centro de Comando, Control, Computo, Comunicaciones, y Contacto Ciudadano)는 1,9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멕시코시티에 약 30,000대의 감시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

□ 유망 품목

- (안전 솔루션) 사이버 보안 솔루션, 통합 관제 모니터링 시스템(AI 기반 CCTV,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 GPS 추적 시스템, 출입 통제·신원 인증 장비(생체인식 출입통제기, 스마트 카드·QR 인증 시스템) 등이 유망
- (드론) 멕시코 드론 시장 규모는 연간 15% 이상 성장 전망, 마약·밀수 단속, 치안 강화 등 정부 수요 증가로 감시·보안용 드론 활용이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

□ 진출전략

- (파트너십 확대) 공공·민간 파트너 연계를 통한 프로젝트 접근성 및 브랜드 제고, FTA 미체결국 약점 극복하여 수주 역량 강화
* 멕시코 정부가 추진하는 C5 통합 감시센터 프로젝트 및 주요 도시·관광지 치안 강화 사업에 현지 ICT 기업과 협업하여 참여 추진
- (네트워크 강화) 멕시코 기업 및 발주처와의 접점 확대를 위해 B2B 상담회, 시연 행사 및 주요 전시회 등을 활용, 한국 기업의 기술적 우위 효과적 홍보

'26년 멕시코 보안 분야 주요 전시회 및 무역관 사업(잠정) 안내

제목	시기(잠정)	규모(잠정)	내용
멕시코 산업 안전 전시회 (SISO EXPO)	3.24.~6./과달라하라	약 100개사	산업 안전 설비 전문 전시회
멕시코 보안전시회 (Expo Seguridad) 한국관	6.2.~/멕시코시티	(국내) 10개사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AI 시티·드론 산업 로드쇼	10월/멕시코시티	(국내) 10개사 (해외) 30개사	포럼, 쇼케이스, 수출상담회 등

전략 ③**온·오프라인 마케팅을 활용한 적극적인 현지 진출 추진****전략 수립 배경**

- 멕시코 내 건강 및 자기관리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연관 뷰티 제품 판매 증가 추세
- 현지 주요 마케팅 사업과 온·오프라인 유통망 공략을 통한 우리 기업의 뷰티 시장 진출 모색

□ 현지 동향

- (뷰티 시장) 스킨케어 화장품 시장 규모는 매출액 기준 '25년 36억 달러로 전년대비 12% 증가, 단일 품목으로는 스킨케어 루틴 세트가 가장 많이 판매됨
- (판매 채널) '24년 뷰티 제품의 온라인 매출은 전년 대비 63% 증가하였으며, 기존의 오프라인 판매와 더불어 온라인 시장 또한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 K-뷰티는 자체 유통망을 보유하거나 주요 유통망(Mercado Libre, Amazon Mexico) 벤더로 입점, 판매 중

□ 유망 품목

- (기능성 화장품) 제품 내 히알루론산, PDRN, 세라마이드 등 안티에이징 혹은 자외선 차단 효과를 보유한 기능성 화장품이 많은 인기를 끄는 것으로 보임(Euromonitor)
- (친환경) 천연 성분, 비건, 크루얼티 프리(Cruelty-Free) 인증 제품 등 저자극·친환경 원료 화장품 수요 증가 추세

□ 진출전략

- (온라인 유통망 공략) Amazon Mexico K-뷰티 리테일 전문관 입점 벤더, Mercado Libre K-뷰티 파워셀러 등 주요 온라인 유통망에 강한 바이어 타겟팅
* K-뷰티 전문 온라인 유통망 입점 셀러 및 벤더 집중 공략은 우리 내수기업이 멕시코 온라인 유통망 시장에 진출할 좋은 기회
- (오프라인 마케팅) 팝업스토어, 판촉전, 전시회 등 현지 마케팅 사업 적극 참여
* 경쟁이 치열한 멕시코 내 K-뷰티 시장에서 제품을 최대한 노출시켜 현지 소비자의 인지도 제고

'26년 멕시코 K-소비재(뷰티) 분야 주요 전시회 및 무역관 사업(잠정) 안내

제목	시기(잠정)	규모(잠정)	내용
중남미 K-뷰티 온라인 수출상담회	3월/온라인	-	B2B 매칭, 화상 상담
멕시코 미용·에스테틱 전시회 (Expo Codestética)	4.1.8~9./과달라하라	약 250개사	화장품, 뷰티/건강제품 전문
K-뷰티 팝업스토어 판촉전	4월, 7월/멕시코시티	(국내) 20개사 (해외) 5개사	기업 매칭, 인플루언서 판촉행 사 등
온라인 유통망 K-뷰티관 입점 지원	5~7월/온라인	(국내) 30개사 (해외) 10개사	Amazon, Mercado Libre 내 K-뷰티 전문관 개설
멕시코 뷰티 전시회(Expo Beauty) 한국관 지원사업	11월/멕시코시티	(국내) 15개사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전략 ④ 한류를 활용한 신규 식품 바이어 발굴



전략 수립 배경

- 한국 식품 및 건강식품 시장의 꾸준한 성장,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는 간편식 수요 증가 추세
- 신규 파트너 네트워크 구축, K-푸드와 친환경 식품 공략하여 현지 식품 시장 진출

□ 현지 동향

- (K-푸드) '25년 1~8월 한국이 멕시코로 수출한 식품(농·축·임·수산물) 규모는 3,97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하는 등 한국 식품 수요는 꾸준히 확대 추세
 - (비건 식품) '24년 멕시코 비건 식품 시장은 약 5.7억 달러 규모이며, '29년까지 10.3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Statista)
- * 멕시코 소비자의 62%는 대체 유제품, 대체 육류와 같은 비건 식품을 건강한 식품으로 인식

□ 유망 품목

- (스낵) 간식류(감자칩 등), 과자류(쿠키 등)는 멕시코 스낵 제품의 대부분을 차지, 한국산 제품은 저칼로리·저지방 스낵으로 인식되는 조미김 등이 인기(Euromonitor)
- (간편식) 이커머스 등 온라인 식료품 시장 규모는 연평균 약 20% 성장 예상, 맞벌이 가구와 디지털 플랫폼 확산에 따라 떡볶이, 라면과 같은 즉석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 진출전략

- (신규 바이어 발굴) 현지 유통 바이어, 식자재 수입상, 외식 프랜차이즈 체인 등 상담회를 통해 신규 파트너를 확보하여 시장 진출 추진
 - * 편의점 체인 내 K-푸드 판촉전, Mercado Libre 등 주요 온라인 유통망 연례 오프라인 행사 등 활용하여 현지 기업들과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 필요
 - * 수도인 멕시코시티 외에 캐레타로, 과달라하라, 와하카 등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신생 K-스토어가 다수 존재하기에 이들 수요를 파악하여 시장을 선점하는 것도 가능
- (한류 활용) K-팝, 드라마 연계 소비가 확대되는 추세로, 이와 같은 K-콘텐츠 속 음식 재현*을 통해 소비자들의 호기심과 충성도 공략
 - * 아티스트 콘서트, 팬미팅, K-컬처 등 연계하여 K-푸드 시식, 팝업스토어 운영

'26년 멕시코 K-소비재(식품) 분야 주요 전시회 및 무역관 사업(잠정) 안내

제목	시기(잠정)	규모(잠정)	내용
멕시코 식음료 전시회 (Expo ANTAD)	5.19.~21./과달라하라	약 1,800개사	식음료, 리테일, 레스토랑 전문 전시회
(소비재 전반) 멕시코 한류박람회	5월/멕시코시티	(국내) 100개사 (해외) 250개사	B2B 수출상담회, B2C 판촉전

전략 ⑤

규제·인증 제도 파악과 유력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현지 의료 시장 선점



전략 수립 배경

- 중증 질환 심화, 고령화 단계 진입에 따른 디지털 헬스케어 및 항노화 제품 관심
- 현지 의료기기 제품 대부분 수입 의존, 공급망 진입 추진 및 인증·등록 절차 간소화 제도 활용

□ 현지 동향

- (만성 질환·고령화) 멕시코 성인 당뇨 환자는 '24년 1,358만 명으로 '50년 1,990만 명 전망(IDF),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4년 8%를 넘어서며 고령화 사회 진입
- (인증 요건 완화) 멕시코보건위험위원회(COFEPRIS)는 의료기기 등록 관련 동등성 인정 범위 확대(한국 포함), 검토 기간 단축(8개월 → 30일) 등 간소화 포함 신규 조치 발표

□ 유망 품목

- (의료기기) 원격진료 플랫폼, 환자 모니터링 앱 등 디지털 헬스 시스템, 고령화에 따른 낙상 감지 센서, 전동 보행 보조기, 건강관리 키트 등 유망
- (의약품) 항노화 관심 증가에 따라 보툴리눔 톡신(Botulinum Toxin, BTX), 필러 등 비수술적 시술 관련 제품, 만성질환 예방 및 전문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수요 증가

□ 진출전략

- (공공 조달) 정부의 의약품 조달 신규 플랫폼(BIRMEC 주관 통합 조달) 전환에 따른 참여 기회 모색, 현지 생산·가공 단계 진입하여 효과적 진출 추진
 - * 공공 조달 절차상 현지 생산설비 보유 시 가점이 부여되어 멕시코 현지 기업과의 협업이 필요
- (민간 시장) 멕시코 의료기기 시장은 수입 의존도가 80% 이상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점유율이 높으나, 사립병원·클리닉 중심으로 한국산 고품질 제품의 틈새 수요 공략
 - * 디지털 헬스 솔루션, 영상 진단 장비 등 향후 유망 기술 제품의 시장 진입 가능성 있음
- (파트너십 구축) COFEPRIS 등록 등 규제·인증 절차를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현지 파트너의 지원이 필수이기에 전시회 등을 통한 공공·민간 네트워크 형성 필요

'26년 멕시코 바이오·의료 분야 주요 전시회 및 무역관 사업(잠정) 안내

제목	시기(잠정)	규모(잠정)	내용
멕시코 제약 전시회(Expofarma)	3.24.~26./멕시코시티	약 200개사	제약·의약 산업 전시회
멕시코 의료기기 박람회(Expo Med)	8.18.~20./멕시코시티	약 180개사	의료기기, 영상 진단 산업 전시회
한-중남미 바이오테크 온라인 파트너십	7~9월/온라인	(국내) 50개사 (해외) 60개사	기회요인 설명회, 수출상담회
멕시코 의료기기·의약품 수출로드쇼	11월/멕시코시티	(국내) 10개사 (해외) 30개사	수출상담회, 포럼

전략 ⑥

미 관세 대응의 전초기지로서의 투자 진출 거점화



전략 수립 배경

- 미국의 對중국 관세 기조와 USMCA 원산지 규정 강화로 멕시코가 對미국 수출 전초기지로 부상
- 글로벌 OEM 및 전자 기업의 멕시코 내 대규모 투자 확대로 우리 기업 벤류체인 진입기회 확대

□ 현지 동향

- USMCA 활용 시, 對미 수출에 유리(원산지 규정 충족 시, 무관세 수출 가능)
 - 우리 기업 對미 수출 시, 한국에서는 관세 부과되나 멕시코 생산·조립 시 면제
* 특히 배터리·철강·전자 등 관세 민감 품목에서 멕시코 생산기지 활용의 전략적 가치 상승
- 對미 근접성 및 투자유치제도를 기반으로 생산 거점으로서의 경쟁력 보유
 - 멕시코는 對미 지리적 근접성으로 물류비 절감 및 신속한 공급망 대응 가능
 - IMMEX, PROSEC, Regla Octava 등 다양한 투자 유치 인센티브 제도 운영 중

□ 유망 품목

- (자동차 부품) USMCA 준수 시 미국 OEM 공급망에 진입 가능
 - 글로벌 OEM(기아차, GM, Toyota 등)이 對미 수출을 위해 멕시코에 공장 운영 중
 - 최근 글로벌 OEM의 멕시코 내 대규모 투자*는 우리 기업의 벤류체인 참여 기회 확대
* (기아차) 공장 설비 교체(25.5, \$1.5억) / (토요타) 하이브리드 픽업트럭 생산 확대('24.11, \$14.4억) 등
- (전기·전자) 미국의 對중국 견제 등에 따라 신규 수요 증가
 - 미국의 對중 관세 및 공급망 다변화 정책으로, 멕시코는 對미 수출의 중요한 허브
* LG전자, Foxconn 등 글로벌 전자 기업은 멕시코에 생산공장 기운영·신규 건설 중
 - 멕시코의 EV 생산 확대(기아차, GM, Ford, Tesla 등)에 따라 전장부품 수요 증가

□ 진출전략

- KOTRA 관세 대응 서비스의 적극적 활용(관세 대응 119 헬프데스크, 관세 대응 설명회 등)
 - 관세 대응 119 헬프데스크(멕시코시티무역관)을 보유한 분야별 현지 전문가 풀(법무·관세·회계·노무 등) 통해 관세 대응 애로 상담 및 기업 대응 전략 수립

'26년 멕시코 투자 진출 분야 주요 사업(잠정) 안내

제목	시기(잠정)	규모(잠정)	내용
투자진출기업 원팀 협의회	1~3분기별 1회/멕시코시티, 케레타로 등	(국내) 10개사 (해외) 30개사	진출 및 통상 환경 설명회 등
중남미 기계장비 사절단	6월/멕시코시티, 몬테레이	(국내) 10개사 (해외) 25개사	현지 OEM·Tier 1 방문 시찰, 세미나, 상담회
Expomaq(기계장비 전시회) 한국관 지원사업	6월/과나후아토	(국내) 5개사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사업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상품)



GPS 추적 시스템

- 선정사유**
- 멕시코에서는 화물 도로 절도가 '24년에 전년 대비 16% 증가, 하루 평균 38건 발생하며 물류 안전이 기업 경영의 핵심 과제로 부상함. 이에 따라 차량 운행 모니터링과 보안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텔레매틱스·GPS 솔루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보안 강화뿐 아니라 차량 관리 최적화·운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됨
- 경쟁동향**
- 리투아니아·러시아·한국 등 해외 기기 공급업체와 현지 시스템 통합업체들이 혼재해 경쟁하는 구조를 보임
- 진출방안**
- 신규 진입 기업은 전파 교란(재머) 방지 기능, 엔진 자동 차단 등 멕시코 특유의 고위험 환경을 직접 겨냥한 차별화 기술을 내세우는 것이 효과적임. 물류기업·보안통합업체·정부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신뢰도를 확보하고, 고속도로뿐 아니라 도시 내 물류 시장에서도 확장하는 전략이 요구

스낵

- 선정사유**
- 멕시코 소비자들은 다양한 이색적인 맛 경험에 익숙하며, 한국 스낵(조미김 등)은 영양과 기능성을 중시하는 멕시코의 신규 소비 트렌드에 부합함. 특히 건강 스낵 부문은 2025~2034년 연평균 6.3% 성장률이 예상되며, 이는 젊은층과 도시 거주 소비자층의 수요 확대로 견인되고 있음
- 경쟁동향**
- 멕시코 스낵 시장은 Pepsico, Nestlé, Mondelez 등 글로벌 대기업이 건강 지향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며 주도하는 가운데, 현지 유기농·자연식 브랜드의 증가로 시장이 분절화되어 있음. 이에 따라 혁신적이고 틈새형 제품을 보유한 신규 진입 기업에게 기회가 존재함
- 진출방안**
- 한국 스낵은 프리미엄·기능성·혁신성을 강조하여 초기에는 대형 마트 및 디지털 유통 채널을 통해 인지도를 확보하고, 이후 편의점 및 전통 소매점으로 확장해 시장 규모와 문화적 적응을 도모하는 전략이 효과적임. 또한 아시아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미국적 맛에 대한 수용성을 고려할 때, 한국 스낵은 멕시코 소비자에게 높은 호응을 얻을 잠재력이 있음

자동차 부품

- 선정사유**
- 멕시코 자동차 부품 산업 규모는 2024년 기준 1,060억 달러로 멕시코 최대의 수출 산업임. 미국의 자동차 부품 전체 수입의 43%가 멕시코 제품(멕시코 자동차 부품의 87%에 해당)으로, 멕시코는 북미 자동차 시장의 최대 공급처임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경쟁국은 캐나다, 일본, 중국으로, 전기·전자 부품, 변속기, 인테리어, 엔진 부품 등 고부가가치 품목이 수출을 견인하고 있음. Coahuila, Guanajuato, Nuevo León 등 주요 산업 허브를 중심으로 기술·산업 전문화가 강화되고, 니어쇼어링을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도 지속 유입 중임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니어쇼어링 이점을 활용한 공급망 관리, 고부가가치 부품 중심의 제조 역량 강화, 산업 단지 내 확장 프로젝트 지원이 핵심 전략으로 제시됨. 또한 USMCA 공동 검토에 따른 역내가치비율, 노동가치요건 조정 등에 대한 세부 조건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음

통신 부품(모뎀, 케이블, 무선기기 등)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멕시코 통신기기·부품 시장은 2024년 약 287억6천만 달러 규모로, 2034년까지 연평균 3.6% 성장해 약 4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임. 원격근무·원격교육·IoT 확산과 디지털화 심화가 수요를 견인하는 가운데, 5G 인프라 투자 확대와 아마존·메르카도리브레·베스트바이 등 강력한 전자상거래 시장이 안정적 성장 기반을 제공.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웨이, 시스코, TP-Link 등 글로벌 브랜드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지역 유통업체들의 존재감도 확대되는 추세임. 판매 채널은 아마존·메르카도리브레·베스트바이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전문 매장을 중심으로 가정용·기업용 모두 판매 중임. 직판과 온라인 유통이 병행되며 소비자·중소기업 접근성이 높아지는 구조임.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격근무·멀티미디어 활용·중소기업 네트워크 현대화에 적합한 솔루션을 우선 공략하되, 고성능 5G 대응 기기를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임. 번들형 유통을 위한 ISP와의 파트너십과 더불어 원격 관리·보안 통합·간편 설치 등 부가가치 기능을 통해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자상거래 채널 강화와 사후 서비스 체계 확보가 시장 점유율 확대와 고객 충성도 제고에 핵심 전략으로 작용 가능

의료기기(영상, 진단용)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멕시코 의료기기 시장은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으며,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원격 건강 모니터링, 수술 보조가 가능한 첨단·혁신 기술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동시에 기존 의료 인프라에 원활히 통합될 수 있는 비용 효율적 솔루션에 대한 요구도 강함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애보트, 존슨앤드존슨, 메드트로닉, 필립스 헬스케어, 지멘스 헬시니어스, 짐머 바이오메트 등 글로벌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음. 그러나 정확성·효율성·경제성을 모두 충족하는 솔루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헬스·원격 모니터링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차별화 기회가 존재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부문은 대량 수요를 제공하나, 복잡한 절차와 지불 지연 문제가 상존함. 한국 기업은 전통적으로 공공 조달을 겨냥하지만, 규제 대응이 비교적 수월하고 수요가 안정적인 민간부문 기회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 가장 효과적인 진출전략은 현지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해 규제 환경을 원활히 통과하고, 공공·민간시장 모두를 커버하는 유통망을 확보하는 것임. 특히 멕시코 내 기존 제약·의료기기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는 규제·지금 리스크를 완화하고, 제네릭 및 특수 치료 영역 시장 진입을 가속화할 수 있음

화장품(기능성)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멕시코 화장품 시장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6.1% 성장이 전망될 만큼 성장 잠재력이 크며, 현지 소비자들은 천연 원료나 독특한 원산지 이미지를 가진 제품에 높은 관심을 보임. 한국 화장품은 이러한 수요와 맞물려 점차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해 가고 있음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브랜드들은 천연·유기농 라인을 강화하며 제품군을 다변화하고 있고, 현지 기업들은 지속 가능성·문화적 정체성을 강조하며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기존 강자들은 유통망 확대에 집중하는 반면, 신생 틈새 브랜드들은 친환경 포뮬러와 직판(D2C) 전략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음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팬데믹 이후 소비자들은 온라인 구매보다 오프라인에서 직접 제품을 체험하고 소통하는 경험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함. 이에 따라 신규 진출 기업은 매장 내 체험존 운영이나 전시를 통해 신뢰를 쌓고 사용 경험을 확대하는 전략이 효과적 |

건설 장비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멕시코 건설 시장은 세인바움 행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주택 개발 수요에 힘입어 새로운 성장 국면에 진입함. '23년 운송 인프라 투자액 2,140억 폐소 중 철도 분야가 1,240억 폐소를 차지했으며, 주택 완공 건수는 인구 1천 명당 1.02호(131,050호)로 부족 현상이 심화됨. 정부는 단기적으로 철도 및 주택 프로젝트 착수를 약속하며 관련 수요 확대가 예상됨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멕시코 건설 장비 시장은 글로벌 및 지역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조임. 고가 장비 부문은 캐터필러, 코마츠가 굴착기·불도저·광산 트럭 등 기술력과 내구성을 앞세워 점유하고 있음. 중국계 XCMG, 산이는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을 빠르게 확장 중이며, 존디어는 농업·건설 기계를 모두 다루며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음. 볼보 건설기계는 지속가능성·효율성·인체공학적 설계로 차별화하고 있으며, 히타치는 굴착기·로더 등 특화 솔루션으로 입지를 확보함. 경량 장비 부문은 혼다, 허스크바나, CIPSA, Joper 등이 주거·상업 프로젝트용 소형 장비를 공급함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들은 정부 주도의 철도·주택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및 파트너십을 적극 추진해야 함. 해외 기업은 현지 개발업체 및 건설사와 협력해 규제·재원 조달 구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비용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축 기술, 운송·주택 프로젝트를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제안함으로써 멕시코 건설 시장에서 장기적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음 |

드론

- 선정사유**
 - 멕시코 드론 시장은 '23년 3,950만 달러 규모에서 '32년 6억4,99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35.9%라는 폭발적 성장세를 보임. 농업·물류·건설 분야를 넘어, 정부가 고속도로 감시와 조직범죄 대응 수단으로 드론을 적극 활용하며 실시간 정보 수집·인력 절감·오류 최소화 효과를 인정받고 있음. 이는 화물 절도 및 도로 치안 불안 심화와 맞물려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경쟁동향**
 - DJI, Wingtra 등 글로벌 기업과 AV3 Aerovisual, BINDEN 등 현지 기업이 공존하며, 국가방위군이 '23년 공중·수중 드론 200대를 도입하는 등 공공 부문 수요도 확대됨. 인공지능·센서 기반 드론을 활용한 건설 모니터링·국방 응용이 확산되고 있으며, 마약 카르텔 단속·항만 보안 등 정부 차원의 전략적 수요가 뚜렷함
- 진출방안**
 - 기업은 멕시코의 공공 안전·인프라 정책에 발맞춰 드론을 고속도로 감시, 건설 현장 관리, 국경 보안의 핵심 자산으로 포지셔닝해야 함. 특히 정부 기관과의 순찰 프로젝트 협력, 멕시코 치안 환경에 적합한 AI 자율 비행 솔루션 제공, 훈련·정비 프로그램 지원이 중요함. 초기 단계에서 공공-민간 협력(PPP) 분야에 진입하는 것이 고성장 시장에서 유리한 점유율 확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서비스)



사이버 보안 솔루션

- 선정사유**
- 멕시코 사이버보안 시장은 '25년 27.6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며, 이 중 보안 서비스 부문이 15.9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25~'30년간 연평균 5.6% 성장해 '30년 36.3억 달러에 이를 전망임. 근로자 기준 '25년 1인당 보안 지출은 약 44.9달러로, 금융·제조·헬스케어·통신 분야에서 고도화된 보안 수요가 반영된 수치임
- 경쟁동향**
- 시스코, IBM, 마이크로소프트, 팔로알토 네트워кс, 포티넷, 브로드컴, 액센츄어, 부즈앨런해밀턴, F5, 레이시온 등 글로벌 기업이 대규모 고객 계정을 주도하는 구조임. 동시에 델타 프로텍트, 메타베이스 Q 등 현지 기업들은 중소기업(SME) 대상 맞춤형 관리형 서비스로 차별화하며 틈새를 공략 중임. AI 기반 통합 플랫폼 도입과 전략적 인수합병이 경쟁 구도를 재편하는 추세임
- 진출방안**
- 신규 진입 기업은 멕시코 내 상대적으로 서비스가 부족한 중소기업 시장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기반 관리형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략이 효과적임. 아울러 금융·제조업 등 고위험 산업군을 타깃으로 하고, 글로벌·현지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시장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AI·자동화 기술 투자를 통해 탐지·대응 속도를 높이고, 교육기관과 협력한 인재 육성 및 현지 규제 환경과의 정합성 확보가 장기적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임

통합 관제 모니터링 시스템

- 선정사유**
- 멕시코 정부는 치안 전략의 핵심을 정보·감시 역량 강화에 두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이 통합 관제 시스템임. 통신망, AI 기반 영상 분석, 실시간 이벤트 모니터링을 결합한 인프라는 도시 보안 수준을 높이고 긴급 대응 및 범죄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경쟁동향**
- 시장은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현지 통신 업체 간 협력으로 형성됨. 탈레스(Thales)와 텔멕스 (Telmex)는 멕시코시티 C5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했으며, 시스코, 지멘스, 센서 전문기업 등이 주요 기술을 공급함. 동시에 멕시코 현지 기업들은 민간보안, 경계 감시, 관리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운영 노하우를 축적하며 경쟁 환경을 다층적으로 구성
- 진출방안**
- 신규 진입 기업은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C5 네트워크 확충·현대화에 발맞춰 영상·센서·고급 분석을 결합한 통합 솔루션을 제안하는 것이 효과적임. 기존 플랫폼과의 호환성, 대도시 확장성, AI 기반 자동 대응 시스템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통신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네트워크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교육·유지보수·사후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공·민간 고객과의 장기적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음

디지털 헬스 시스템

- 선정사유**
- 멕시코 디지털 헬스 시장은 '24년 약 16억 달러 규모로 평가되며, '33년까지 연평균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원격진료 이용 건수는 2018년 대비 4배, 디지털 처방은 3.5배 증가하며 환자·의료진 모두의 수용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접근성이 높은 기술 기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경쟁동향**
- 원격의료 부문은 스타트업, B2B 플랫폼(MiSalud 등), 인슈어테크, 민관 파트너십 등이 혼재하며 아직 뚜렷한 시장 지배자가 없는 분산적 구조임. 가상 상담부터 AI 진단까지 다양한 모델이 실험되고 있으나, 인프라·격차·규제 불확실성·표준 부재 등 제약이 존재해 시장 확대가 제한되고 있음. 이는 신규 진입 기업이 모범 사례를 제시할 여지를 남기고 있음
- 진출방안**
- 진출 기업은 현지 의료기관·보험사와의 파트너십을 우선시하고, 전자의무기록(EMR)과의 원활한 통합, NOM-004-SSA3-2012 등 신흥 규제 표준 준수를 확보해야 함. 신규 수요층을 겨냥한 문화적 적합성이 높은 솔루션 제공, 명확한 규제 환경 마련을 위한 정책 참여 등이 차별화 요인이 될 수 있음. 의료 접근 격차 해소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함

에너지 관리 시스템

- 선정사유**
- 멕시코 국가전력시스템(SEN)은 '24년 약 50GW의 최대 수요를 기록하며 효율적 에너지 관리 필요성이 크게 부각됨. 원격 모니터링, 실시간 제어, 엣지 컴퓨팅 등은 전력 소비 최적화, 고장 조기 감지, 운영 안정성 제고에 기여함. '25년 에너지 개혁은 국가의 전력망 통제권을 강화하고, 현대적 인프라·분산 발전·자가 소비·디지털 기술 투자 확대를 통해 전력 전환 및 관리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함
- 경쟁동향**
- 슈나이더 일렉트릭, 버티브, 이튼, GE 베노바 등 글로벌 기업이 첨단 모니터링·제어·보호 시스템을 공급하며 주도하고 있음. 동시에 현지 자동화 장비 제조 공장이 확충되며 국내 시장 대응력이 강화됨. 주요 공급 범위는 SCADA 시스템, 스마트미터, 환경 센서, 데이터센터·핵심 인프라용 제어장치 등이 포함되며, 디지털화 확산으로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 부가가치 서비스에 새로운 기회가 제공되고 있음
- 진출방안**
- 신규 진입 기업은 산업·상업·데이터센터 부문에서 소비 최적화와 운영 안정성을 보장하는 확장형 솔루션을 제공해야 함. CFE, 송배전 운영자, 규제 당국과의 협력이 국가 전략 프로젝트와의 정합성 확보에 필수적임. IoT, 실시간 모니터링, 예측 분석에 대한 투자를 통해 예방적 유지보수·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구축·교육·지원 서비스를 병행 제공함으로써 시장 채택을 가속화할 수 있음

첨부 3

'26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26년 멕시코 지역 KOTRA 주요사업

구분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중남미(공통)	IDB K-LAC Business Summit	3분기/미정
	K-뷰티 온라인 수출상담회	3월/온라인
	북중남미 통합 자동차부품 온라인 수출상담회	미정/온라인
소재·부품·장비	중남미 기계 장비 사절단	6월/멕시코시티·몬테레이
	(개별참가) 기계 장비 전시회(Expomaq) 한국관	6월/과나후아토
공급망	멕시코 온·오프라인 KAP(자동차부품) 사업	5월/케레타로
K-소비재	멕시코시티 한류박람회	5월/멕시코시티
	온라인 유통망 K-뷰티관 입점 지원	5~7월/온라인
	K-뷰티 팝업스토어 판촉전	4월, 11월/멕시코시티
	(단체참가) 뷰티전시회(Expo Beauty) 한국관	11월/멕시코시티
바이오의료	의료기기·의약품 수출로드쇼	11월/멕시코시티
	한-중남미 바이오테크 온라인 파트너십	7~9월/온라인
인프라·방산	중남미 방산협의회	4월/산티아고 10월/온라인(잠정)
	AI시티·드론 산업 로드쇼	10월/멕시코시티
	(단체참가) 보안전시회(Expo Seguridad) 한국관	6월/멕시코시티
투자진출	투자 진출기업 원팀 협의회(연 3회)	분기별 1회 (멕시코시티, 케레타로, 몬테레이 등)
해외취업 (K-Move)	중남미 취업멘토링	3월/온라인
	중남미 취업박람회	6월/온라인
	멕시코 인사 담당자 세미나	9월/온라인

첨부 4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해당없음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USMCA 공식 공동검토	7월 1일	
멕시코 행정부 2027년 예산안 제출	9월~11월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2026 FIFA 월드컵	11월	미·캐 공동 개최
Expo Manufactura(몬테레이 제조기술 전시회)	2월 3~5일	제조·산업기계
EXPOMAQ(레온 산업기계 전시회)	6월 2~4일	공작기계·금속가공
INA Automechanika Mexico(멕시코 자동차부품 전시회)	7월 8~10일	자동차부품
Aero Expo Mexico(멕시코 항공 전시회)	3월 3~5일	항공우주·소재
FABTECH Mexico(멕시코 금속가공 전시회)	5월 12~14일	금속가공·용접
Expo Energia(멕시코 에너지 전시회)	4월 21~23일	전력·에너지
Expo Farma(멕시코 제약 전시회)	4월 1~30일	의료·제약
Expo Beauty(멕시코 뷰티 전시회)	11월 1~30일	화장품·미용
Food Tech(멕시코 식품 기술 전시회)	9월 30일~10월 1일	식품 원료, 첨가제
Expo Seguridad México(멕시코 보안 전시회)	6월 2~4일	보안·시큐리티
EXPO PACK México (멕시코 포장 전시회)	6월 2~5일	포장·가공
Medical Expo Guadalajara (멕시코 의료기기 전시회)	6월 8~10일	의료기기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박서영	과장	멕시코시티무역관	(52-55) 5514-3173	seoyeong.park@kotra.or.kr
2	박성환	차장	멕시코시티무역관	(52-55) 5514-3173	juanpark@kotra.or.kr
3	조윤후	차장	멕시코시티무역관	(52-55) 5514-3173	jyhoo@kotra.or.kr
4	김홍지	차장	멕시코시티무역관	(52-55) 5514-3173	hj.kim@kotra.or.kr
5	김형석	차장	멕시코시티무역관	(52-55) 5514-3173	khs@kotra.or.kr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026 멕시코 진출전략



ISBN : 979-11-402-1527-0 (95320)